2009 05.27 No.13(통권 114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



지구촌 현장 춤추면 녹색 에너지 솟는 나이트클럽

불 끄고 강도 잡고… 강원 평창우체국 집배원 24시

걸어볼까? 역사·생태 어우러진 서울성곽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망과 의미

지구를 살리는 유쾌한 방법

녹색소비



외우기 쉽고 부르기 쉬운 – 내가 만드는 계좌번호 서비스

핸드폰, 집 전화번호 등 고객님이 원하는 번호로 계좌번호를 만들어 드립니다

※개인 및 법인계좌 개설도 가능하며 기존 계좌와 연결해서 사용가능

녹색구매 생활화 시급하다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원장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뿐 아니라 침체 상황에 놓인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국민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무릇 소비가 생산을 이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탈피해 저탄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은 녹색소비에서 시작할 수 있다. 즉, 녹색소비는 녹색기술에 기반을 둔 생산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선순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녹색소비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사용-처분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과 자원사용을 줄이는 소비행태로 녹색상품의 구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폐기물 감소와 자원 재활용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녹색상품 구매의 생활화는 녹색성장과 녹색소비의 핵심 연결고리로, 녹색기술과 친환경 기법을 적용한 상품시장을 확대해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우리나라도 녹색구매 확산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 결과 소비자의 환경마크제품 인지도와 구매경험이 점차 늘고 있으며, 녹색상품 시장 규모도 2007년의 10조원에서 2010년에는 16조원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자들은 녹색구매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생활공감형 친환경 소비재가 부족하고, 상품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거나 일부는 품질이 떨어지는 등 녹색구매를 실천하는 데는 열악한 면이 많다고 느낀다. 따라서 녹색구매의 생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녹색상품을 다양화하고 녹색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단위나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제적 논의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녹색구매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하는 녹색구매 세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이 대회를 유치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 해도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패하게 된다. 소비자의 실천적 참여를 통해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친환경적 생활양식에 기반을 둔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녹색소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자 주체들을 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녹색소비를 통해 가계지출을 절감함으로써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녹색성장과 녹색소비의 목적인 동시에 국제사회에도 선진화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 G

Contents

Weekly_2009.05.27_No.13(통권 114호)



19

기·획·특·집

지구를 살리는 유쾌한 방법 녹색소비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소비가 요즘 트렌드다.
녹색소비는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그 위력은 크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소비를 실천할 때
기업도 녹색상품을 생산하고
녹색기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녹색소비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힘의 원천이다.



60



08

Weekly 공감

발행일 2009.5.2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바이러스
기부
"친구들 도움에 뜨거운 눈물 흘렸어요"


우리에겐 품앗이 유전자가 있다

●● 〈Weekly 공감〉 12호(5월 20일자)에 실린 '모여라! 대한민국 기부천사들'을 읽고 많은 분들이 감동과 격려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국내와 해외 등 기부 대상의 우선순위를 놓고 가벼운 토론도 벌어져 그대로 소개합니다.

"기부천사들 때문에 살맛이 난다." _ 공도식 작가

"해외를 돕는 사람들 보면…참~. 가까운 데도 도울 사람 많습니다. 굳이 멀리 가서 매스컴 타며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_ 진이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군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부한다면 아무도 기부하지 못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므로 같은 인류애로 돕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못살 때 외국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교육과 산업이 발전했을까요? 받았으니 돌려주는 거지요. 기부는 해외든 국내든 다 소문나게 마련입니다. 단 조건 없이 조용히 하는 기부가 되어야 합니다." _ free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아닐까요?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자기 물건 사기도 아까운데 이렇게 기부할 수 있다는 건 큰 결심이 없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성형으로 외모를 가꾼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기부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_ 채승연

●●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Weekly 공감〉 독자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정성껏 답해주셨습니다. 그중에는 리본이나 하트 모양의 장식을 설문 응답 엽서에 달아 격려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스무 분께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영숙(대구 수성구 수성3동)
김서정(강원 동해시 천곡동)
김영준(광주 광산구 월계동)
김호겸(경북 상주시 공성면 무곡리)
나정숙(서울 광진구 자양3동)
박찬용(전북 남원시 월락동)
백남조(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송복선(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원종숙(충남 논산시 내동)
유병오(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윤유희(부산 금정구 장전1동)
윤정자(전남 순천시 서면 죽평리)
이신혜(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임건혁(서울 도봉구 방학동)
전예빈(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채윤기(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최성열(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최은정(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최용범(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함리라(인천 서구 가좌2동)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똑똑똑…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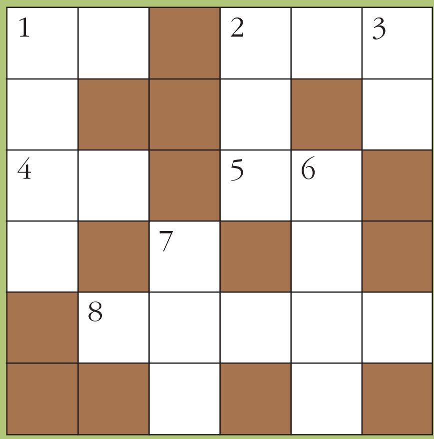
haRu님이 〈Weekly 공감〉 12호의 ‘모여라! 대한민국 기부천사들’을 읽고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연예인들이 이 정도로 기부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재산 기부 약속을 지키는가요?”라고 했습니다.

haRu님은 〈Weekly 공감〉 12호 42쪽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 재산출연추진위원장 송정호 변호사 인터뷰’ 기사를 읽으시면 궁금증이 풀릴 겁니다. 송 변호사의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현재 이 대통령의 재산헌납 문제를 처리할 위원회가 구성돼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을 도울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재산출연 방법과 절차 등은 6월 말쯤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입니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Weekly 공감〉도 최근 8호(4월 22일자)와 9호(4월 29일자)에서 ‘자전거 타기’와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자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자동차가 사용하는 기름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일부 자전거가 감당하면 그만큼 외화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할 때보다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다목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일도 보고 회사에 출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_ miso

공감 퍼즐



정답을 적어 주소·연락처와 함께 6월 4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몇 분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콩과에 속하는데, 팥보다 작고 녹색이죠. OO장군 전봉준.
2. 남쪽의 맨 끝을 뜻하는 말. “마라도는 우리나라 OOO에 위치한 섬이다.”
4.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희석주. “일 마치고 OO 한잔 하지.”
5. 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말.
8. 원래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진 것을 뜻하는 말. “화석연료와 배터리 두 가지로 운행할 수 있어 연료가 적게 드는 OOOOO 자동차.”

세 로

1. 환경을 고려한 씀씀이로, 녹색성장을 이끄는 힘이죠. 실내온도 낮추기, 아나바다 운동, 친환경제품 사용, 탄소라벨 제품 구입, 탄소발자국 계산하기, 쇠고기 덜 먹기, 푸드 마일리지, 제철 채소 먹기 등. “OOOO로 살아나는 국민경제”
2. 탄소 캐시백 홍보대사로 선정된 탤런트. 부인은 하희라 씨죠.
3. 우리나라 명절 중 하나로, 음력 5월 5일입니다.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 뛰며 씨름을 하죠. 수릿날이라고도 합니다.
6. 이용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점수를 주고, 쌓인 점수를 화폐처럼 쓰게 하는 프로그램. 항공사에서 시작되어 신용카드사, 통신회사 등이 활용하고 있죠. 요즘에는 공익을 위해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탄소 OOOO, 푸드 OOOO, 에코트리 OOOO 등등.
7. 전북 진안군 남쪽에 있는 산. 동봉과 서봉의 모양이 말의 귀처럼 생겼다 하여 이 이름이 붙었죠.

〈Weekly 공감〉 11호(5월 14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2 인구 4 돌보미 6 다둥이 8 백설기 10 분만실
세로 1 첫돌 3 구렁이 5 보육시설 7 동실동실 9 기분

당첨자

김현자(부산 동래구 명장동)
박여정(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신병수(전북 군산시 소룡동)
신지용(서울 강동구 둔촌2동)
우창수(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빌딩 신축 공사장에 설치된
작가 최정화 씨의 가림막 작품 '천 개의 문.'
아현동 재개발 공사장 등에서 모은 문짝 7백11개로 만들어졌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만 앞가림을 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빌딩 공사장도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근육과 땀의 향연, 그것의 반복을 통해 조금씩 뼈대와 속살을 갖춰가는 새로운 건물의 탄생은 수술대에 놓였다 깨어나는 환자의 회생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으로 둘러쳐진 공사장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수술방' 입니다. 수술이 삶의 기로에 선 환자를 소생시키듯 신감각의 디자인 예술, 공사장 가림막은 살맛나는 도시를 만듭니다. 가려진 속을 은근히 감질나게 기다리게 하는 조바심과 기대감을 자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림의 미학' 아닐까요? '위기'라는 가림막으로 가려진 우리 경제도 그렇게 회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만 앞가림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진 · 정경택 기자 / 글 · 김진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문을 연 디지털도서관은 국내 최대 규모인 1억1천6백만 건의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한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도서관

‘디브러리’를 만나보세요

5월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디지털도서관(디브러리 · dibrary)이 문을 열었다. 2005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반 만이다. 지상 3층, 지하 5층 규모인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열람실을 비롯해 다국어정보실, 복합상영관, 잔디광장, 한국정원, 디지털북카페, 손수제작물(UCC) 스튜디오 등으로 꾸며졌다.

디지털도서관은 국내 최대 규모인 1억1천6백만 건의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콘텐츠는 도서관 어디서든 검색과 이용이 가능하다.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디브러리 포털(www.dibrary.net)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일반인은 개관행사가 끝나는 5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연령도 1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문의 · 디지털정보이용과(02-590-6200,6205)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부쳐

"녹색성장, 함께 시작합시다"

6월 1일과 2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정부의 '신(新)아시아 외교'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2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6월 1, 2일 제주도에서 열린다. 이 정상회의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국제회의(ASEM, APEC 등)와는 다른 차원의 특별한 회의다. 이명박 대통령은 10개국 정상과 연쇄적인 개별 양자회담을 갖는데, 우리 정상이 한 국제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외교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신아시아 외교 추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증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된 의제인 개발협력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강화는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 방향과도 일치한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요한 외교적 협력대상이다.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아세안이 주축이 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의 안보협의기구로서 북한 핵문제 등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기도 하다. 또한 아세안은 우리 경제의 핵심 파트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세안은 3대 교역대상 지역(9백2억 달러 규모), 2대 투자대상 지역(58억 달러 규모), 2대 해외건설 수주 지역(91억 달러 규모)이다.

인적, 문화적 교류도 빼놓을 수 없다. 아세안은 지난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3백20만명으로 제2위 방문 지역이었고, 25만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또 10만명 이상의 아세안 근로자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을 이뤄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인도 4만명에 육박한다.

"영원한 친구" 한·아세안 상호 의지 다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접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이웃인 아세안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경제발전 경험의 폭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0일 태국에서 아피싯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1989년 대화관계 수립에 이어 1997년 아세안 10개국과의 수교를 마무리하고,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은 우리나라가 이들과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는 자리다. 슬로건도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으로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로서 상생과 공영의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우리와 아세안은 상호 위협이나 견제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민주화와 사회경제 발전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국제관계의 오래된 격언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G

글 · 최종문(외교통상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바로 곁에 있는 큰 시장 아세안

'따뜻한 이웃' 한국 역할 키우자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는 4강 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세안 시장의 잠재력과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를 살펴보고 통상외교 차원에서 주요 정책 방향을 살폈다.

6월 1, 2일 동남아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동남아시아 10개국 정상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지고 향후 경협의 진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4강 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세안 시장의 잠재력과 한·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고, 통상외교 차원에서 주요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7, 8퍼센트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 초반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지역주의 대두, 중국경제로의 투자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아세안은 역내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국 6개국으로 구성되었던 아세안은 1995년 베트남이 신규 가입한 이후 미얀마, 라오스에 이어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함으로써 동남아 10개국 모두 회원국이 됐다.

우리에게 동남아시아는 시장 개척, 투자 진출, 자원개발 및 경제개발 지원 등 각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교역규모는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교역시장으로 부상했고, 우리 기업의 제2의 투자진출 지역이며 건설시장이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이기도 하다.

황금알 낳는 신흥시장 아세안

아세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 2004년 4백64억 달러에서 2008년 9백2억 달러로 지난 5년간 2배로 급증해 중국, EU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시장으로 부상했다. 동남아와의 교역에서 특징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로 인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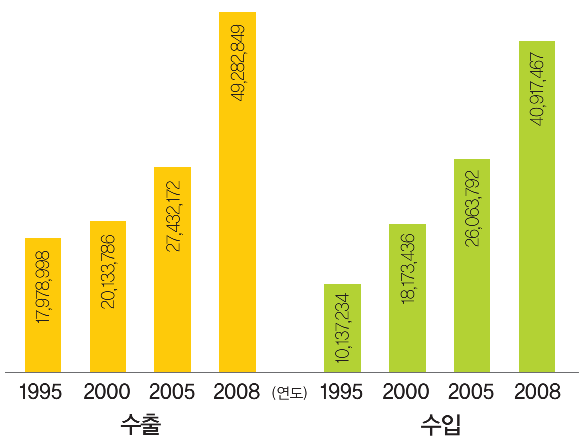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면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최근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별로 역내 국가들과 연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협력사업보다는 동남아 각국에 신뢰감을 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세안 개발 이니셔티브'라는 종합적인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는 중점지원



5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기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국가로 선정돼 중점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공여하고 있다. 1987년 이후 유상원조는 44개 사업에 약 9억 달러의 차관이 공여됐다.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무상원조는 1991~2007년간 총 2억8천2백만 달러를 지원했고, 그중에서 4개 후발국가(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총 1억5천3백만 달러를 지원해 아세안 회원국 지원 실적의 54%를 차지한다. 역내 개발격차 지원을 위해 개발수요가 큰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시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서 아세안이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세안+3 협력체제의 강화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추진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과의 협력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저개발국에 대해 중점적으로 ODA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시아 지역으로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방위 협력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적절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 저개발국들은 발전단계나 개발격차가 크므로 나라별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잠재력이 큰 국가는 물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같은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도 경제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에 대한 개발협력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지역통합정책과의 연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6월에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2009년 5월에는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이 발효됐다. 올해 4월에는 한·아세안 투자협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앞으로 양 지역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아세안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역내 개발격차가 심화된다면 경제통합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세안 후발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개발 이니셔티브'라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고, 다양한 협의채널을 활용해 구체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세안 역내 빈곤국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역내 국가들을 위해 건설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세안 역내 주요 국가에 지한파(知韓派)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우수한 인재를 국비유학생으로 초청해 한국의 사회문화를 접하게 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에서 제시된 녹색성장 벨트로 메콩강 유역을 설정해 환경협력을 위한 ODA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총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아세안 역내 기후변화 관련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4강 외교에 치중되던 것에서 벗어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시아 지역으로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함으로써 경제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안보·문화 분야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협력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적절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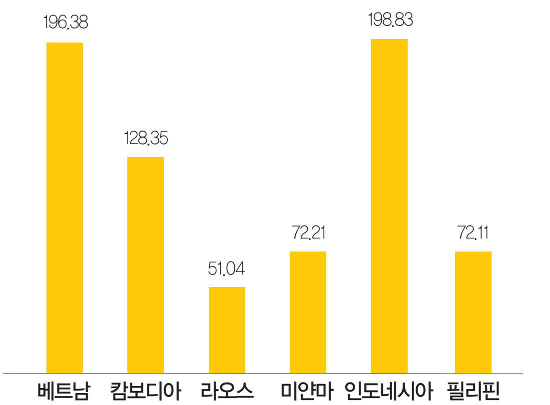
글 ·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세안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2007)

(자료 : 아세안 사무국)

구분	면적 (km²)	총인구 (천명)	경상GDP (백만 달러)	1인당 GDP (US$)
싱가포르	704	4,589	161,546.6	35,206.1
브루나이	5,765	396	12,317.0	31,076.1
말레이시아	330,252	27,174	186,960.7	6,880.2
태국	513,120	65,694	245,701.9	3,740.1
인도네시아	1,890,754	224,905	431,717.7	1,919.6
필리핀	300,000	88,875	146,894.8	1,652.8
캄보디아	181,035	14,475	8,662.3	598.4
라오스	236,800	5,608	4,128.1	736.1
미얀마	676,577	58,605	12,632.7	215.6
베트남	329,315	85,205	71,292.1	836.7
아세안 10	4,464,322	575,525	1,281,853.9	2,227.3

아세안 국가에 대한 양자간 ODA 공여실적 (1997~2007)



(단위 : 백만 달러 · 순지출 기준)

KTV 특집 프로그램 '깨어나라 4대강아!'

대한민국 잇는 새 물길 영상으로 보는 4대강 살리기

KTV 특집 프로그램 '깨어나라 4대강아!'가 6월 7일까지 2주 동안 방송된다. '4대강 살리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이 프로그램의 상세한 정보와 전망이 도움이 될 것이다.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KTV에서는 특집 프로그램 '깨어나라 4대강아!'가 2주 연속 방송된다. "깨어나라 4대강아!"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돼 있다. 오프닝은 지난 4월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말이다. 이 대통령은 "강 살리기는 1천만 시민의 마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마음을 물길 따라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관(官)과 민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2부에서는 인공위성 '아리랑 2호'에서 바라본 4대강의 현재와 4대강 살리기가 완료되는 2011년 미래의 모습을 번갈아 담았다. 마른 강바닥에 물길이 생기고, 주변 습지가 푸르게 가꿔지는 가상 영상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이후 우리 국토의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다.

"사업 필요성 국민 모두 공감하는 계기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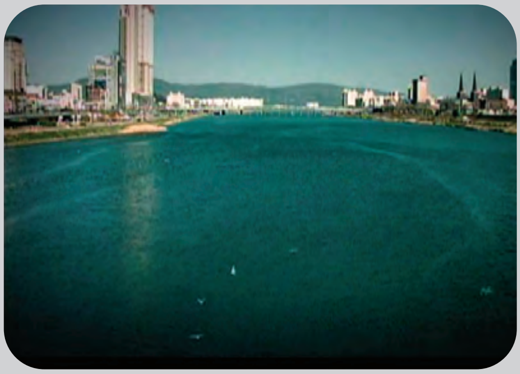
3부에서는 시궁창으로 변해버린 영산강 때문에 피해를 본 전남 나주시 주민들과 상습적인 장마철 물난리로 고통받고 있는 경북 봉화군 주민들의 현장 인터뷰가 마련돼 있다. 또 한때 경제개발의 부작용으로 죽은 강이었지만 지금은 1급수로 변한 태화강의 성공 사례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엔딩에서는 4대강 살리기의 세부 사업과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년간 14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면 자연이 살아나고, 강 주변에 수상레저와 생태체험장 등 문화공간이 생기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담당 김진웅 PD는 "4대강 살리기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점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깨어나라 4대강아!'는 3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총 14회에 걸쳐 방영된다. G

글 · 정지연 기자





'깨어나라 4대강아!'는 2011년 푸르게 변한 우리의 4대강 유역을 가상 영상으로 보여준다.

'깨어나라 4대강아!' 방송시간표

일자	시간	일자	시간
5.25	13:10~13:40	6.1	13:10~13:40
5.26	12:30~13:00	6.2	12:30~13:00
5.27	13:10~13:40	6.3	13:10~13:40
5.28	12:30~13:00	6.4	12:30~13:00
5.29	12:00~12:30	6.5	12:00~12:30
5.30	11:00~11:30	6.6	11:00~11:30
5.31	19:00~19:30	6.7	19:00~19:30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연합

5월 16일 대전동부경찰서 주변도로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관들에게 죽봉을 휘두르고 있다.

"죽창 시위, 국가경쟁력을 찔렀다"

최근 노사 상생과 경기회복 조짐에 찬물을 끼얹는 '죽창시위'가 주말의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졌다. 불법 폭력시위는 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안으로는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

5월 16일 오후, 주말의 대전 도심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도심을 행진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죽봉의 끝을 뾰족하게 만든 이른바 '죽창시위'로 경찰 저지선이 허물어지면서 시위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1백4명이 중경상을 입고 경찰차량 99대와 장비 1백55점이 파손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불법 폭력시위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5월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시위 현장에서 검거된 4백57명 가운데 죽봉으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극렬행위를 주도한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벌어진 이 같은 폭력사태는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할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폭력시위는 단순히 경찰에만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촛불시위도 불법을 제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장기화, 과격화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발생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주도의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글로벌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세 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다음날인 2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번 시위와 관련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선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죽창시위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대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와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불법 폭력시위는 노사 상생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려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은 '불행한 사태'로 평가된다. 전 세계가 한국의 경제회복세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G

글 ·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재난관리 선진화 앞장…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여름 경보' 소방방재청은 숨가쁘다

풍수해, 물놀이 사고 등 재난사건과 사고가 잦은 계절 여름이 돌아오면 더욱 바빠지는 기관이 소방방재청이다. 5월 25일 방재의 날을 맞아 최성룡 청장에게서 재난관리의 선진화 계획을 들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풍수해, 물놀이 사고 등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중 풍수해로 말미암은 연평균 피해 규모는 인명피해가 76명, 재산피해는 1조6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2백46명의 인명피해와 5조1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물놀이 사고 피해자 역시 최근 3년간 연평균 1백50명에 이른다.

소방방재청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04년 만들어진 재난관리 전담기관이다. 민방위훈련과 시설물 붕괴 등 인적재난 업무, 각종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 업무, 그리고 풍수해 · 지진 · 폭설 등 자연재해 업무의 예방, 수습, 복구를 총괄한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게 임무다.

소방방재청을 이끄는 최성룡(59) 청장은 1977년 '제1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돼 2004년 서울시소방방재본부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방재 현장을 지켰다. 재난대응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2004년부터 대불대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그는 지난해 3월 소방간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청장에 임명됐다. 최 청장이 추구하는 실무와 이론의 상호보완을 통한 소방방재 발전정책은 우리나라 재난대응·방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재난정책은 무엇보다도 '한발 앞선(One Step Ahead)' 상황관리와 대처가 중요하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성과중심'의 선진적 재난관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월 27일부터 열리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무엇입니까.

기상이변과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재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실용성과 현장 적응성을 검증함으로써 재난 발생 때 유관기관이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통합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풍수해와 지

진 같은 복합재난, 국보급 문화재 화재 같은 특수재난 등 재난 유형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재난 분야와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조7천여억원을 투입해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 기회에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시설·지구에 대한 일제정비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천제방이나 수리시설, 배수로 등을 개·보수하고 소하천, 농수로를 정비하는 한편 하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풍수해대책이 궁금합니다.

대규모 피해 우려지역 1백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7백83곳)을 지정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간마을 및 야간의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이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을 미리 살펴보는 예찰활동을 강화해 위험이 발견되면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신속하게 설치해 접근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소하천,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사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특수재난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인력 부족과 소방장비 노후화 문제 해결에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소방·방재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 및 연구 지원과 산업화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 협력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전문 치료병원(STC) 설립과 국제 연구개발회의 개최, 국제수준에 맞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물질(CBRN) 대응 교육과 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성룡 청장은 현장을 자주 찾아다니며 한발 앞선 재난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에 열리는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어떤 행사입니까.

세계 소방관들의 상호 우호 증진과 친목 도모 및 소방정보 교류의 장으로 내년 8월 21일부터 9일간 대구에서 열립니다. 소방차 조작, 계단 오르기, 수중 인명구조 등 소방 업무와 연관된 종목을 포함해 각종 스포츠 경기가 열립니다. 대회기간 중 각종 국제학술 세미나와 첨단소방 장비를 전시할 '대한민국 소방안전박람회'도 함께 열립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올 여름에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불규칙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도 1, 2개 정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지대 침수 및 도로유실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장마, 태풍, 집중호우 때는 기상청의 일기예보, 시·군청과 소방서 등 재해관련 일선기관의 안내와 고지에 잘 따라주어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풍수해 · 안전사고 대비 국민행동 수칙

1.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음주 및 식사 직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2. 물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3. 수상스키나 보트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조끼를 착용한다.
4.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직접 구하려 하지 말고 주위의 물건(줄, 긴 막대, 튜브 등)을 이용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5. 의식 없는 사고자를 구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한다.
6. 파도가 갑자기 높아져 위험할 때는 물을 안 먹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체력 소모를 줄이도록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7. 하천이나 계곡을 건널 때는 물살이 약한 곳을 골라 될 수 있으면 바닥을 끌듯이 이동한다.
8.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더 높은 곳 중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를 선택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만든 금연 포스터들.

정력 떨어지고, 수명 짧아지고, 암 걸리고…

이 래 도 피우시겠습니까?

흡연자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경고 그림으로 금연을 촉구하고, 우리나라도 금연정책과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제22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내놓은 주제는 '흡연경고 그림(Tobacco Health Warning)'이다. WHO는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발간한 소책자 〈진실을 보이고 생명을 구하라 : 건강경고 그림 사례(Showing the truth, Saving lives : The case for pictorial health)〉를 통해 담뱃갑에 게재하는 건강경고는 어떤 금연정책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뱃갑에 표기하는 경고는 흡연이 건강에 심각하게 해로운 요소라는 공공의 인식을 높인다는 것이다.

WHO는 전체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담배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며, 이러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조기 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은 담뱃갑에 이러한 경고를 전혀 혹은 거의 게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흡연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WHO는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2009년 조사에서 흡연자의 37퍼센트만이 흡연이 장기적으로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17퍼센트만이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2004년 조사에서는 내과의사의 95퍼센트가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심장병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66퍼센트에 그쳤다. 흡연은 암보다 심장병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

WHO는 특히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은 비용에 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흡연경고 그림은 문맹 흡연자들에게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 이미지나 브랜드를 중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흡연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정부가 금연에 들이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WHO는 흡연경고가 담배를 끊게 하거나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등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 흡연자의 28퍼센트는 흡연경고를 본 다음 흡연을 줄였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경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은 지 6개월 만에 무료전화를 통한 금연희망자가 9배 증가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금연의 날' 맞아 유공자 등 포상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올해 금연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캐나다,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베네수엘라 등 23개 국가가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세미나, 금연·건강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 주최로 5월 29일 서울 서

초구 반포동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22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과 세미나에서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금연 유공자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및 사업장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국군부산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원주기독병원 등 6곳.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성모병원은 병원 안에서 담배를 팔지 않을 뿐 아니라 병원 내외부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 기념 세미나에서는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서홍관 박사가 '담배의 진실, 제대로 보여주자'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며 '담배포장에 숨겨진 전략(김대현 계명대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 '담뱃갑 표기의 허와 실(신호상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담배회사의 판매 및 후원활동이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조형오 동국대 광고학과 교수)' 등 발표·토론이 이어진다.

6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열리는 제22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건강박람회에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국회 직원과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 금연·건강 상담과 함께 금연을 홍보한다.

연내 16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추진

한편 올해 말부터 16개 종류의 공중이용시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퍼센트까지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금연2020' 계획에 따르면 대형 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숙박업소, 학교,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목욕장, 게임방, 대형 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16종류의 시설이 금연구역이 된다.

개정법이 당장 적용되는 곳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이다. 대형 건물은 전체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실내체육시설은 1천명 이상 수용시설에 대해, 공연장은 3백 석을 넘을 경우 전면 금연구역이 된다. 주점이나 음식점은 면적이 1백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된다. 그러나 대형 건물에 입주한 주점은 업소 면적이 작아도 대형 건물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이선규 사무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연 관련 9개 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16종류의 시설 가운데 일부만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연2020' 계획은 앞으로 편의점이나 소매점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렇게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는 것은 최근 흡연율이 상승 조짐을 보인 데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흡연 규제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비판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내외 금연정책을 비교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비해 건물 내 흡연이 훨씬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교육시설, 정부시설, 사무실, 식당, 술집, 건강관리시설, 기타 사업장 등 7개 시설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이다. 담뱃갑에 적힌 경고문구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담뱃갑 크기의 60퍼센트 이상'으로 넣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0퍼센트 이상이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흡연경고 그림 게재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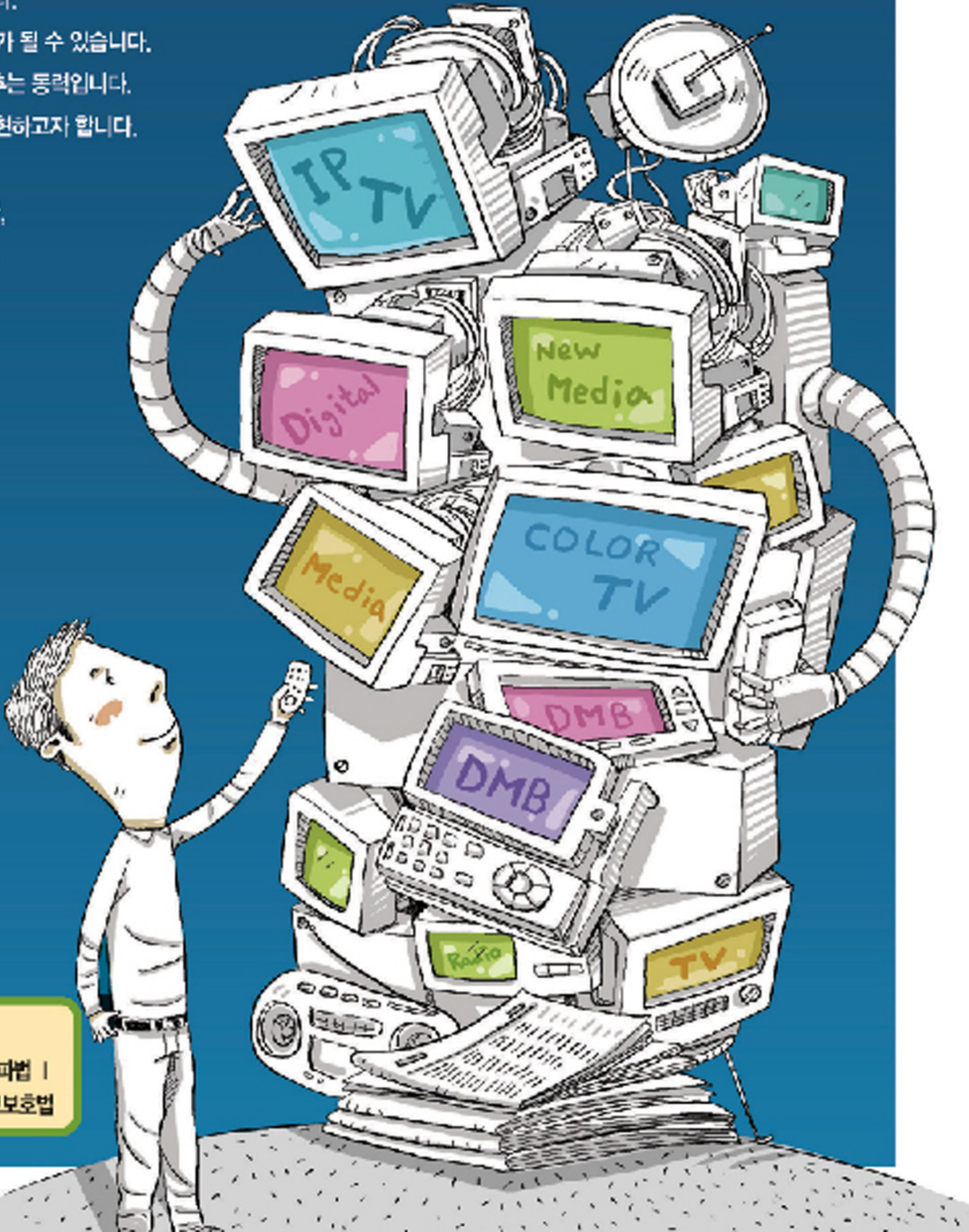
일러스트 · 남동윤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이 필요한 이유

뉴스가 다양해집니다
볼거리가 많아집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우리에게도 '타임워너'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보화에 부응해 IT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융합의 시대에 앞서야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활기찬 미디어 환경을 갖추는 동력입니다.
이를 통해 '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역동적인 방송 · 통신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가야 할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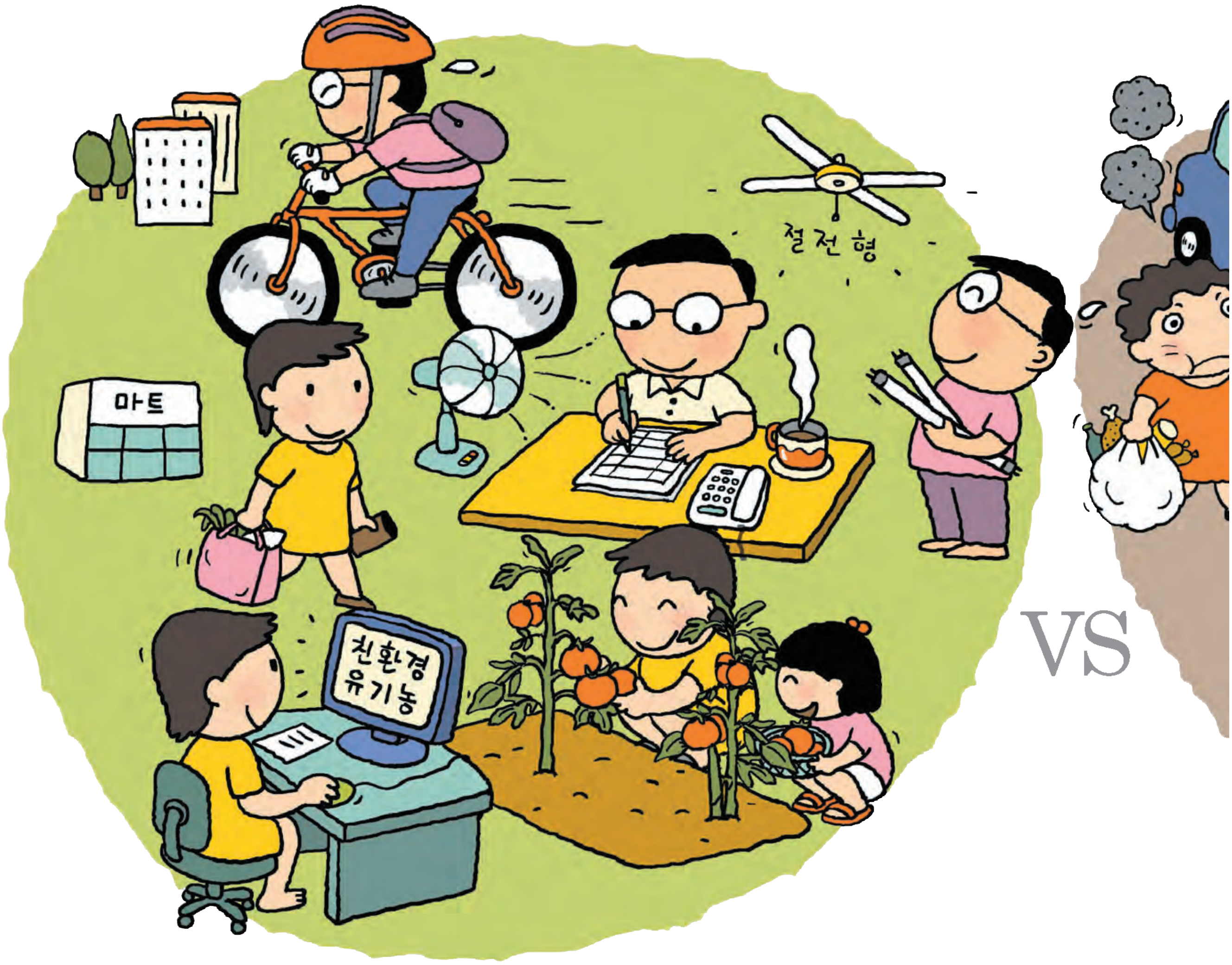
미디어산업발전 7대 법안

신문법 | 방송법 | 언론중재법 | IPTV법 | 전파법 | 디지털전환특별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지구를 살리는 유쾌한 방법
녹색소비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소비가 요즘 트렌드다.
녹 색 소 비 는 거 창 하 지 않 다 .
장바구니를 생활화하고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 쓰는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조금 구차해 보일 수도 있다. 귀찮기도 하다.
하지만 그 위력은 크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소비를 실천할 때
기업도 녹색상품을 생산하고 녹색기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녹색소비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힘의 원천이다.



대한민국 시민 녹색소비 가상 비교

탄소발자국 No! 녹색발자국 Yes!

대한민국 보통시민 '반(反)녹색' 씨와 녹색소비자 '김녹색' 씨의 일상은 어떻게 다를까. 탄소발자국으로 따져본 그들의 소비 패턴은 우리가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녹색발자국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대한민국 보통시민 반녹색 씨. 오전 7시 잠에서 깨자마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집어온다. 밥을 먹은 후 깨끗이 드라이클리닝한 양복을 꺼내 입는다. 7시 50분,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승용차 안. "개나 소나 다 끌고 나오니 차가 꼼짝을 않잖아." 혀를 끌끌 차며 반 씨는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진다.

회사에 도착한 시각은 8시 20분.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자리에 앉는다. 10시 30분 영업부 회의. 또 한 잔의 커피를 마신 후 종이컵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는다. 오후 2시는 거래처와의 미팅. 미팅에 늦을까 시속 80킬로미터로 강변북로를 달리기 시작한다. 다행히 제시간에 도착했다. "커피 드릴까요?" 거래처 미스 리에게 또 한 잔의 종이컵 커피를 받는다. 미팅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오후 5시. 오늘은 부장 승진 턱이 있는 날. 오후 7시,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쾌적한 식당의 불판 위에서 이글이글 고기가 익어간다.

같은 시각, 반 씨의 아내 '가정' 씨는 대형 할인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다. "손님, 물건 담으실 것은 있습니까?" "비닐봉지 두 개에 나눠 담아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 남편에게서 저녁 먹고 들어온다는 전화가 왔다. 집으로 돌아와 세탁기에 빨랫감과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넣고 온수 코스에 맞춘다.



일러스트 · 이우정

반녹색 씨

대한민국 보통시민 반녹색 씨. 밥을 먹은 후
드라이클리닝한 양복을 꺼내 입는다.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승용차 안.
"개나 소나 다 끌고 나오니 차가 꼼짝을 않잖아."
아내 '가정' 씨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비닐봉지 두 개요"라고 말한다.
집으로 돌아와 세탁기에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넣고 온수 코스에 맞춘다.

오후 8시, 두 손에 한 아름 쇼핑 봉투를 든 아들 '성장'이가 들어온다. "또 동대문 갔었구나?" "5만원으로 티셔츠 네 벌에 청바지 한 벌, 모자까지 샀다니까. 나, 훌륭하지?" 드라마 보느라 정신없는 엄마 가정 씨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성장이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컴퓨터 앞에 앉는다. 한참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밤 12시 30분인데 안 자니?" 엄마의 잔소리에 성장이는 얼른 침대로 들어간다.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부터 켜는 성장이는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는다.

이쯤에서 반 씨 가정의 탄소발자국을 한번 따져보자. 탄소발자국이란 사람의 활동이나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_2)의 총량을 의미한다. 사소해 보이는 종이컵 하나, 휴대전화 사용 등에도 탄소는 발생한다. 한 예로 반 씨가 오늘 사용한 종이컵은 3개. 한 개에 탄소 11그램을 배출하니 모두 33그램의 탄소를 배출했다. 20일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6백60그램이다. 이 탄소배출량은 자가용이 3킬로미터 움직일 때의 탄소배출량과 맞먹는다.

반 씨 가정의 탄소발자국을 알아보기 위해 그린스타트(www.greenstart.kr)의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클릭했다. 먼저 3인 가족인 반 씨 가정의 월평균 전기 사용료는 2백30킬로와트, 도시가스는 1백62세제곱미터, 수돗물은 12세제곱미터, 쓰레기 배출량은 40리터, 중형 승용차 출퇴근(하루 왕복 50킬로미터, 한 달 20회 이용) 등을 입력했다. 한 달 동안 반 씨 가정이 내뿜은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려 3백72.63킬로그램. 반 씨 가족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려면 무려 연간 1천4백42그루의 잣나무를 심어야 한다.

반녹색 VS 김녹색 탄소배출량 '3배' 차이

이번에는 김녹색 씨 가정을 살펴보자. 김 씨는 석 달 전, 아기를 출산한 후배 가족에게 자신이 쓰던 중고차량을 넘겼다. 회사가 자전거로 힘껏 달리면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어서 '차 없이 살아보자'고 결심했다. 그린스타트를 검색해보니,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0)인 자전거에 비해 자동차는 무려 5.25킬로그램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돼 있다.

처음엔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 때문에 장딴지가 욱신거렸지만 이젠 다리에 근육도 꽤 붙었다. 남들은 자전거 출근을 어떻게 하느냐며 독하다고들 하지만, 해보니 건강도 지키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돈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삼조다. 김 씨는 또 지난 주말에는 집안의 형광등을 모두 절전형 형광등으로 바꿨다. 기존 형광등을 1천 시간 사용하면 3만4천 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절전형을 쓰면 6천5백 그램으로 줄어든다.

김 씨는 사무실에 개인용 컵을 가져다두고 쓴다. 처음에는 설거지하는 게 좀 귀찮긴 했지만, 이젠 출근하자마자 컵부터 씻는 게 버릇이 됐다. 김 씨의 부서 동료들은 뜻을 같이해, 그의 사무실에서는 '종이컵'을 찾아보기 힘들다.

친환경 세제와 소금을 이용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 '청정' 씨에게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택배가 왔는데 받아가세요." 한살림에서 주문한 친환경 화장품과 목욕용 물비누 리필제품, 먹을거리 등이다. 한살림에 가입하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한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침 유치원에 갔던 아이가 돌아왔다. 오자마자 "엄마, 토마토 주세요" 한다. 베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CO_2의 양을 계산하는 그린스타트의 탄소 발자국(오른쪽).

김녹색 씨

김녹색 씨는 회사가 자전거로 힘껏 달리면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어서 '차 없이 살아보자' 고 결심했다. 친환경 세제와 소금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 '청정' 씨에게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택배가 왔는데 받아가세요." 한살림에서 주문한 친환경 화장품, 먹을거리 등이다.

다에 조그만 미니 텃밭을 만들었는데 햇볕이 잘 들어서인지 탐스럽게 토마토가 열렸다. 네 줄기밖에 되지 않지만, 화학 비료나 농약을 일절 쓰지 않은 토마토라 주스로 먹으면 정말 달고 맛있다.

자, 그러면 김 씨 가정의 탄소발자국도 한번 알아보자. 김 씨 가정의 월평균 전기 사용료는 2백 킬로와트, 도시가스는 1백20세제곱미터, 수돗물은 11세제곱미터, 쓰레기 배출량은 40리터, 자전거 출퇴근(하루 왕복 40킬로미터, 한달 평균 15회 이용)을 기본으로 하되 가끔 지하철로 출퇴근(하루 왕복 1시간 40분, 한달 5회 이용)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 동안 1백23.93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된다. 자동차 출근을 생활화하는 반 씨와 비교할 때 거의 3배나 적은 차이가 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려 깊은 녹색소비

김 씨 가족과 같은 녹색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녹색소비란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말한다. 이왕이면 지구를 생각해서 친환경 제품을 쓰고, 환경을 위해 덜 쓰고, 또 아껴 쓰는 것이다. 환경마크협회에 따르면 녹색소비는 구매, 사용, 폐기라는 세 과정을 아우른다. 환경마크 인증 상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녹색구매라면, 일단 구입한 제품을 아껴 쓰고, 온실가스나 쓰레기를 덜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녹색사용, 그리고 무조건 폐기할 게 아니라 재활용을 고민하는 것이 녹색폐기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녹색소비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기본적으로 소비의 최대 목표는 편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녹색소비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재단 고현주 홍보팀장은 "녹색소비는 미래 세대가 앞으로도 소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소비행태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요즘의 우리만큼 소비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녹색소비를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라고도 한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소비가 이뤄지면 자연은 그만큼 훼손된다. 따라서 되도록 덜 사고 덜 쓰는 것이야말로 근원적인 녹색소비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론에 가깝다. 녹색소비는 소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내용이 되는 욕구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사는 차선아(36) 씨는 적극적인 녹색소비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여성민우회 생협에 가입해 친환경 제품 위주로 구매활동을 하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과대포장된 제품을 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또 옷을 구입할 때는 세탁 마크를 살펴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주로 산다.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솔벤트 같은 유기용제는 물을 오염시키고 피부에도 해로워요. 또 섬유를 상하게 해 옷 수명도 짧게 하죠. 세탁비도 만만찮으니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도리어 절약이랍니다."

차 씨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려 깊은 소비행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녹색소비자연대 총무국 고민정 국장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소비행위는 정부 정책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생산과 유통방식을 변화시킨다. 녹색소비는 더불어 사는 지혜요, 삶의 방식으로 봐야 한다." G

글 · 정지연 기자

대통령이 생각하는 녹색 생활

"녹색성장은 선택 아닌 필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다"는 이 대통령의 녹색 꿈은 무엇일까.

지난 5월 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들에게서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어릴 적엔 초등학교 교장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밝히며 "지금은 대통령을 그만두면 환경운동, 특히 녹색운동가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퇴임 후 환경운동가로 일하고 싶다"는 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4월 30일 열린 '여성이 그린 세상, G-코리아 결의대회'에서도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녹색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한 이래 녹색성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됐다. 이름만 거창할 뿐 실체가 없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이 대통령의 결의는 확고하다. 이는 5월 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회'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범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대의 목표로 세워 치밀한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첫 국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우리는 세계에서 정보기술(IT)이 가장 앞선 나라지만, 원천기술에서는 늘 남의 나라에 의존해왔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범국민적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이 대통령은 '여성이 그린 세상, G-코리아 결의대회'에 참석해 "여성들이 그린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고 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며 국민의 의식개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녹색생활 아이템으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자전거 2백만 대를 매년 수입하고 있다"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20년 걸려 세계 5위 국가가 된 걸 볼 때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개되면 5년 안에 세계 3대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범국민적 자전거 타기 운동으로 2050년까지 지금의 에너지 소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반으로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운동가로 거듭나 노벨평화상을 받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처럼, 우리도 퇴임 후 '환경운동가'가 된 퇴임 대통령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여성이 그린 세상, G-코리아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녹색 바람이 불기를 기원하고 있다.

좋은 것으로 필요한 만큼만 착하게 쓰는 '그린슈머'

5, 6년 전만 해도 환경운동가나 에코마니악(Eco Maniac · 적극적 환경수호자)이 하던 일을 이젠 주부와 직장인들도 한다. 천연비누를 만들어 쓰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고효율 절전제품을 구매한다.

#1 경북 칠곡군에 사는 와이프로거(주부 블로거를 일컫는 말) '한결이'는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스타가 됐다. 석면 탤크(활석)가 평범한 주부인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세 살 난 딸을 키우는 그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든 탤크가 쓰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옥수수 전분, 화이트클레이 같은 석면 위험 우려가 없는 재료로 베이비파우더를 만들었다. 만드는 법은 자신의 블로그 '한결이의 해피홈(blog.naver.com/sosin7)'에 올렸다. 이 글을 한 포털사이트가 메인화면에 띄우면서 그의 블로그엔 그날 하루에만 18만명이 찾아왔다.

#2 올해 3월 서울 광화문의 한 중소기업 사내 게시판에 '머그컵 공동구매' 제안이 올라왔다. 이 회사의 직원 한 명이 "경기도 어려운데 환경도 보호할 겸 머그컵을 쓰자"고 제안한 것이다. 다른 직원이 "이왕이면 저개발국 농민들을 돕는 공정무역 머그컵을 사자"며 YMCA의 카페 티모르 머그컵을 소개했다. 사내 게시판을 본 경영진도 동참해 손님용 컵도 머그컵으로 구비했다. 컵 닦는 당번도 정했다. 누군가 친환경 세제를 가져다놨다.

친환경이 일상이 돼가고 있다. 5, 6년 전만 해도 환경운동가나 에코마니악 등이 하던 일을 이제는 주부와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한다. 웰빙족에서 로하스족, 에코맘, 에코파파, 에코걸, 에코보보스 등 이들을 일컫는 용어도 다양해졌다.

용어마다 뜻은 약간 다르다. 웰빙족은 내 몸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로하스(LOHAS ·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족은 내 건강과 함께 지구의 건강까지 고려한다. 에코보보스는 자연을 명품 즐기듯 즐긴다. 에코걸은 친환경 이미지를 따른다. 에코맘이나 에코파파는 자녀를 위해 친환경적으로 산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자연에 이로운 소비를 한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 녹색소비자, 즉 그린슈머(Greensumer)다. 이들은 의식했든 아니든 구매로 시장 흐름과 세상을 바꾸고 있다.



친환경이 일상이 돼가고 있다. 환경운동가나 에코마니악이 하던 일을 이제는 주부와 직장인들도 일상적으로 한다.





'이로운 블로그'의 에코걸들은 친환경적이되 경제적인 생활법을 전한다(왼쪽). 석면 위험 우려가 없는 재료로 베이비파우더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한결이의 해피홈' 블로그.

'친환경 제품은 비싸다' '친환경 구매는 돈 있는 사람들, 환경운동가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친환경 제품을 쓰되 적게 쓰면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는 덕이다. 특히 에코맘과 에코걸 등 여성 블로거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기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친환경적 생활방식을 널리 퍼뜨린다.

'파티오 유진(design11111.tistory.com)'. '유진의 안뜰'이라는 이름의 이 블로그에는 매일 9백~1천명의 방문객이 꾸준히 찾아든다. 댓글도 수십 개가 붙는다. 특히 인기 높은 콘텐츠는 '오렌지소스 오이샐러드 만들기' 같은 웰빙 살림법이다.

'파티오 유진'이 전하는 살림 노하우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이다. 그가 개발한 '1석4조 세숫대야 목욕법'을 살짝 엿보자.

1단계 욕조에 물을 채우지 않고 들어간다.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샴푸를 풀어 거품을 낸 후 머리를 감고 헹군다.

2단계 대야에 물을 받아 목욕용 젤이나 비누를 풀어 몸을 씻고 헹군다.

3단계 마지막으로 욕조에 물을 적당히 받고 쉰다.

'파티오 유진'은 "머리와 몸을 깨끗이 씻은 상태이므로 물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나오면 된다"며 "이렇게 하면 보통의 방법으로 욕조에서 목욕할 때보다 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방식으로 샤워하면 샴푸도 절약할 수 있다.

"유해물질 추방" 정보 함께 나눈다

'이로운 블로그(erounblog.tistory.com)'의 에코걸들도 친환경적이되 경제적인 생활법을 전한다. 이들이 전하는 노하우는 단순해서 따라하기 쉽다. '물로만 머리 감고 샤워해도 생활먼지와 때를 지워낼 수 있다' '천연샴푸를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내어 사용하면 아껴 쓸 수 있다' 등등.

유해물질 정보도 공유한다.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



웰빙 살림법을 소개하는 '유진의 안뜰' 블로그.

현명한 소비자, 로하스족의 12조건

1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한다.
2 환경보호에 적극적이다.
3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한다.
4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만든 제품에 20퍼센트의 추가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5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기대효과를 적극 홍보한다.
6 지구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한다.
7 재생가능한 원료를 이용한다.
8 타성적 소비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재료를 이용한 제품을 선호한다.
9 전체 사회를 생각하는 의식 있는 삶을 영위한다.
10 지속가능한 기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한다.
11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선호한다.
12 로하스 소비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

*자료 ·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동아DB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는 천연세제와 세제 없이 설거지할 수 있는 수세미 등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한 구희연, 이은주 씨가 쓴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이라는 책이 화제가 되자 이로운 블로그는 '화장대 위 파라벤 화장품을 버리고 파라벤 없는 화장품을 쓰자'고 제안했다.

파라벤, 즉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는 유방암과 세포변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다. 립스틱 등 화장품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부제 중 하나다.

파라벤 없는 친환경적 화장품은 더 비싸지 않냐고? 그린슈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강력하다. '아껴 쓰면 된다' '필요한 만큼 사면 된다'. 한마디로 '선택소비'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보자. 할인점에 갔더니 수박 한 통에 1만원, 반 통에 7천원이다. 그린슈머라면 어느 것을 살까. 답은 '다 먹을 수 있는 것'. 먹다 남겨 버리는 것보다는 먹을 만큼 사서 다 먹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이것이 선택소비다.

한반도, 지구 평균보다 2~4배 변화 빨라

선택소비란 '반드시 하고 싶은 것, 꼭 갖고 싶은 것은 좋은 것으로 사는 것'을 뜻한다. 불필요한 것보다는 필요한 것, 필요한 것들이 많으면 더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소비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절약으로 더 많이 저축하면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다. 많이 쓰면서 받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더 많이 쓰려는 욕망을 통제하는 건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지난 세기와 다르다. 그중 기후변화, 자원 고갈은 이미 현실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2006년 10월 발표된 스턴보고서에서 니컬러스 스턴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다. "지구온난화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5~20퍼센트에 이를 것이며 1930

선택소비를 하는 3단계 행동수칙

1단계 불필요한 살림살이를 줄인다. 공간이 넓어지고 관리비용, 각종 전기세,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2단계 구매 시점을 늦춘다. '지름신'이 내리는 순간 선택을 늦추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3단계 불편한 소비를 한다. 디지털시대에도 소비는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계 예산과 재무원칙에 맞춰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덜 쓰기가 어렵다면, 불편하더라도 꺾어버리는 것이 좋다.

*자료 · 에듀머니

그린슈머가 가볼 만한 온라인쇼핑몰

이로운몰(www.erounmall.com), 생생몰(mall1004.org)
페어트레이드코리아(www.ecofairtrade.co.kr)
에코숍(www.ecoshop.kr)

그린슈머가 가볼 만한 매장

한살림(shop.hansalim.or.kr), 두레생협연합(www.dure.coop)
여성민우회생협(www.minwoocoop.or.kr)
아이쿱(www.icoop.or.kr),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store.org)
행복한나눔(www.kfhi.or.kr/giversmart)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이롭고 지구와 미래 세대에 이롭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 인류를 진화시키는 큰 변화는 역사적으로 늘 그랬듯 대중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비롯된다.

년대 대공황과 맞먹는 경제적 파탄을 겪을 수 있다.”

한반도는 육지가 높으니 안전지대일까. 한반도는 이미 지구 평균보다 2~4배 빠른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 평균기온이 1백년 동안 섭씨 0.74도 오르는 사이 한반도는 1.5도가 높아졌다. 서울, 울산 같은 대도시는 한반도의 2배인 3도나 기온이 올랐다.

온난화의 진짜 공포는 온도 상승이라는 예상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생태적 난민들이 살길을 찾아 한국의 해안선을 넘어온다면? 열대성 돌림병이 한반도를 덮친다면? 예상치 못한 난기류가 내가 혹은 내 아이들이 탄 비행기를 휘감아버린다면? 온난화가 일으키는 변화는 단순히 ‘자연’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큰 위협을 일으키는 진원지는 ‘우리의 일상적 욕망’이다. 인류가 땅속에 파묻혀 있던 화석연료를 꺼내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후, 저마다 큰 차와 높은 빌딩을 동경하게 된 이후, 구체적으로는 1750년 이후 2백50년 동안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5퍼센트가 늘어났다. 지구 평균기온은 0.8도 높아졌다.

대도시의 기후변화는 인간 욕망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울의 온난화는 전 세계 평균의 3배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 5월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이해하기 Ⅲ-서울의 기후변화’에 따르면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1908년부터 2007년까지 1백년간 2.4도 올랐다. 1912~2008년 사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7도, 전 세계는 0.74도 올랐다. 서울의 기온 상승폭은 한반도의 1.41배, 전 세계의 3.24배다.

더 편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인류 전체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있다. 지구의 유한한 자원은 모든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엔 부족하다. 일부 인간의 욕망은 지구 자체, 즉 기후와 환경까지 바꾸고 있다.

샴푸 적게 쓰기, 좀 더 걷기, 전기 아끼기, 불필요한 낭비하지 않기,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같은 일은 번거로울 수도 있다. 습관을 바꾸거나 욕망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이롭고 지구와 미래 세대에 이롭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 인류를 진화시키는 큰 변화는 역사적으로 늘 그랬듯 대중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비롯된다.

‘개인 혼자서는 선순환을 시작할 수 없다.’ (윌리엄 이스터리,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 중에서) G

글 · 황국상 (머니투데이 쿨머니팀 기자)

연합



5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이마트 친환경 및 중소기업 상품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녹색 프로미스’ 캠페인 전개

“되도록 야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집중도를 높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야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야근을 줄이면 물, 전기, 종이, 기타 물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녹색 프로미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 직원 3백10명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개인 차원의 다짐을 게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약속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자제’와 ‘이면지 사용 확대’ 등이었다. 이밖에 ‘프린터 출력 줄이기’ ‘자전거 출퇴근’ ‘장바구니 쓰기’ 등도 많았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하기’와 ‘금연하기’ ‘가족의 동참 유도’ 등에도 많은 직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했다.

육류 생산을 위해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다량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에서 ‘주 1회 고기 안 먹기’, ‘고기 섭취량 줄이기’ 등의 약속도 있었다. 또 자신의 몸에서 직접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축하겠다는, 몸으로 때우겠다는 색다른 약속도 있었다.

‘녹색 선언으로 절약한 돈으로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에 기증하겠다’는 녹색나눔 선언과, 선언한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수첩에 매일 녹색일기를 기록하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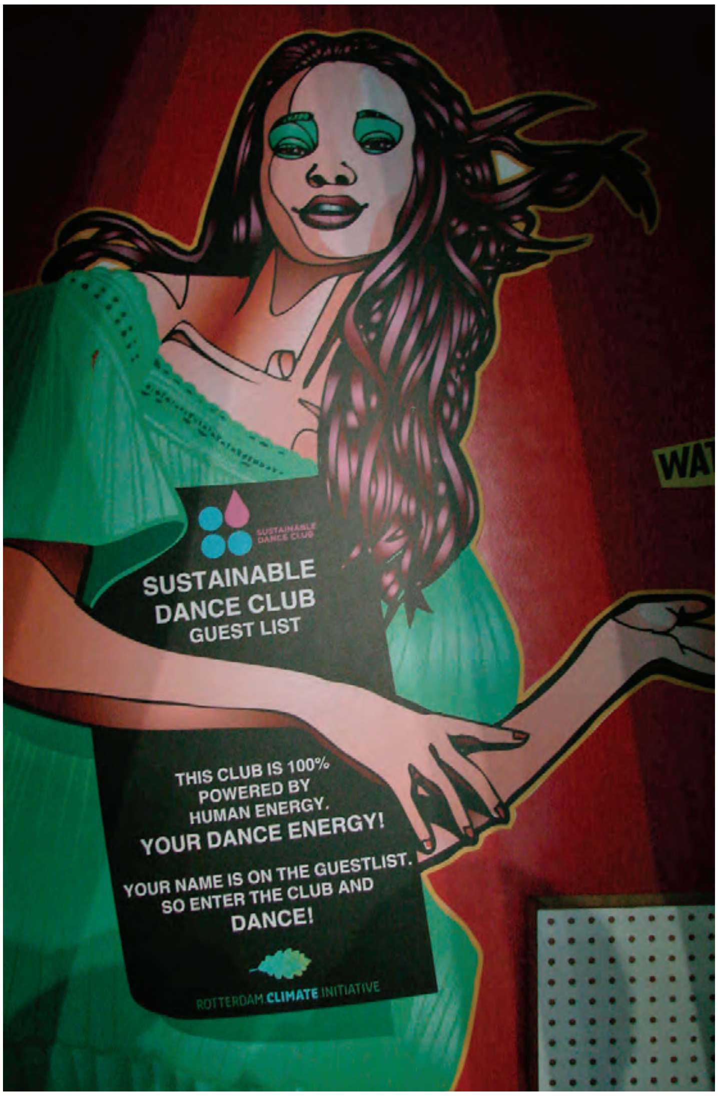
통일부는 ‘녹색 프로미스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사진이 새겨진 머그컵을 전 직원에게 지급했고, 금연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직원을 위해 5월 12일부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글 · 구자홍 기자

지구촌 이색 녹색소비 현장

춤추면 에너지 솟아나는 나이트클럽 온실가스 줄이려 야간 경기시간 단축

사람들이 춤출 때의 진동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한 나이트클럽,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호텔, 경기시간 단축으로 탄소를 줄이는 프로야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까지 파고든 선진국의 녹색소비, 현장으로 안내한다.



"우리 클럽의 에너지는 1백퍼센트 춤추는 사람들이 만듭니다"라고 씌어진 '클럽 와트(WATT)'의 홍보 표지판.

우리는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행위를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먹고 자고, 보고 노는 소비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여행지에서 머물게 되는 호텔은 또 어떤가.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 화려한 조명과 커다란 음악 소리로 가득한 나이트클럽 역시 대표적인 에너지 과소비 공간이다.

저탄소 사회를 지향한다고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호텔과 나이트클럽을 강제로 문 닫게 할 수는 없을 터다. 결국 소비생활을 저탄소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 녹색소비야말로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에너지다.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이 체결된 뒤 감축 의무를 먼저 지게 된 선진국들은 사회 모든 분야에 저탄소형 시스템을 갖추고 삶의 양식 자체를 바꿔가고 있다. 매 순간 이산화탄소를 인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CD 제작 때 발생 탄소량 앨범가격에 포함

나이트클럽의 전력 사용량은 일반 가정의 1백50배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초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문을 연 '클럽 와트(WATT)'는 다르다. 사람들이 춤출 때 바닥에 전달되는 진동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자가발전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춤을 출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생산된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화장실 변기 용수는 빗물을 받아서 쓰는 등 물 사용량과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럽 와트는 일반 나이트클럽보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줄이겠다고 한다.

클럽 와트의 탄생을 도와준 곳은 '지속가능한 댄스클럽 연구소(SDC)'다. 연구소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발맞춰 유흥 문화와 공간을 변신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동아DB



런던의 탄소재단 사무실. 이곳에는 탄소발자국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로고가 전시되어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영국 런던의 '클럽 수리아'도 친환경 나이트클럽으로 유명하다. 자가발전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주류와 음식은 유기농과 공정무역 상품으로 제공한다. 폐휴대전화 등을 재활용한 실내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영국의 노력은 유난스러울 정도다. 지난해 2월부터 제품의 생산·제조·배송·폐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합산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탄소발자국 표시제도'를 시행 중이다. 과자 한 봉지를 사더라도 탄소 발생량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올해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체육계에도 저탄소 바람이 불고 있다. 스포츠 경기는 선수들과 수많은 관중을 이동시키고, 경기시간에는 조명과 냉난방 시설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일본 프로야구계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경기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 프로야구는 2007년까지 한 경기당 평균 소요시간이 3시간 18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시간을 한 경기당 18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격과 수비의 교대는 2분15초 안에 신속히 마쳐야 한다. 투수는 공을 던질 때 공연히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주자가 없을 때 포수에게서 공을 받은 뒤 투수는 15초 안에 피칭을 해야 한다. 경기시간 단축은 야구 인기 확산과 팬들을 위한 서비스로서도 의미 있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선 탄소중립 음악 CD도 등장했다. 지난해 3월 발매된 사카모토 류이치의 〈koko〉라는 싱글 앨범이 그것이다. 이 CD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을 계산한 뒤 그것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앨범 가격에 포함시켰다.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나무를 심어 없애기로 했는데, 그 비용의 절반은 음반사가 내기로 했다. 양심 있는 소비자들은 기꺼이 그 상품을 구입할 것이고, CD가 팔릴 때마다 기금이 모아져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다.

영국은 지난해 2월부터 제품의 생산 · 제조 · 배송 · 폐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합산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탄소발자국 표시제도'를 시행 중이다. 과자 한 봉지를 사더라도 탄소 발생량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다.

연합


일본 프로야구계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경기 소요시간을 줄이고 있다.

1백퍼센트 재생에너지만 쓰는 독일 호텔

독일의 환경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시에는 1백퍼센트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호텔이 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막아낸 뒤, 태양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생태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빅토리아 호텔' 입구엔 '세상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씌어진 커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밝아야 하고 뜨거운 물도 잘 나와야 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야 하는 고급 호텔이라면 에너지도 당연히 많이 사용할 것이다.





유명한 생태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왼쪽).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난방과 온수에 쓰이는 에너지를 모두 자체 생산하고 있다니 놀랍다. 호텔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석유 대신 목재를 때는 보일러가 그 임무를 맡고 있다. 부족한 전기는 인근 발전소에서 끌어오는데 수력, 태양광, 풍력, 유채기름을 쓰는 열병합발전 등 1백퍼센트 재생에너지라고 한다.

호텔 음식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로 만든다.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신선할 뿐 아니라 운송에 쓰이는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주차장은 매우 좁게 만들었다. 차량을 가져오지 않는 손님을 우대하기 위해 시내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한다. 화장실 욕조 모양도 특이하다. 인체 모양으로 설계된 욕조는 목욕물을 30퍼센트 정도 절약해준다고 한다. 물론 일회용품은 제공되지 않는다.

환경 피해 최소화 '윤리적 관광' 활발

여행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도 활발하다. 여행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일 뿐 아니라 자연보호 활동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책임지고 없앤다는 의미에서 나무 심기 등의 활동을 벌이거나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부금으로 내놓는 것도 한 방식이다. 선진국의 여러 항공사에서는 항공권을 구입할 때마다 이동거리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문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경제를 돕는 지속가능한 여행, 윤리적 관광에 이어 봉사활동과 여행을 결합한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의식 있는 여행객을 위한 '책임여행'이라는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들도 나오고 있다. 책임여행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1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책임여행전문 여행사 '리스판서블트래블닷컴'이 설립된 이래 '슬로트래블', '그린글로브', '에티컬이스케이프', '윤리적 여행자', '지속가능한 여행', '글로벌익스체인지' 등 책임여행 관련 단체와 여행사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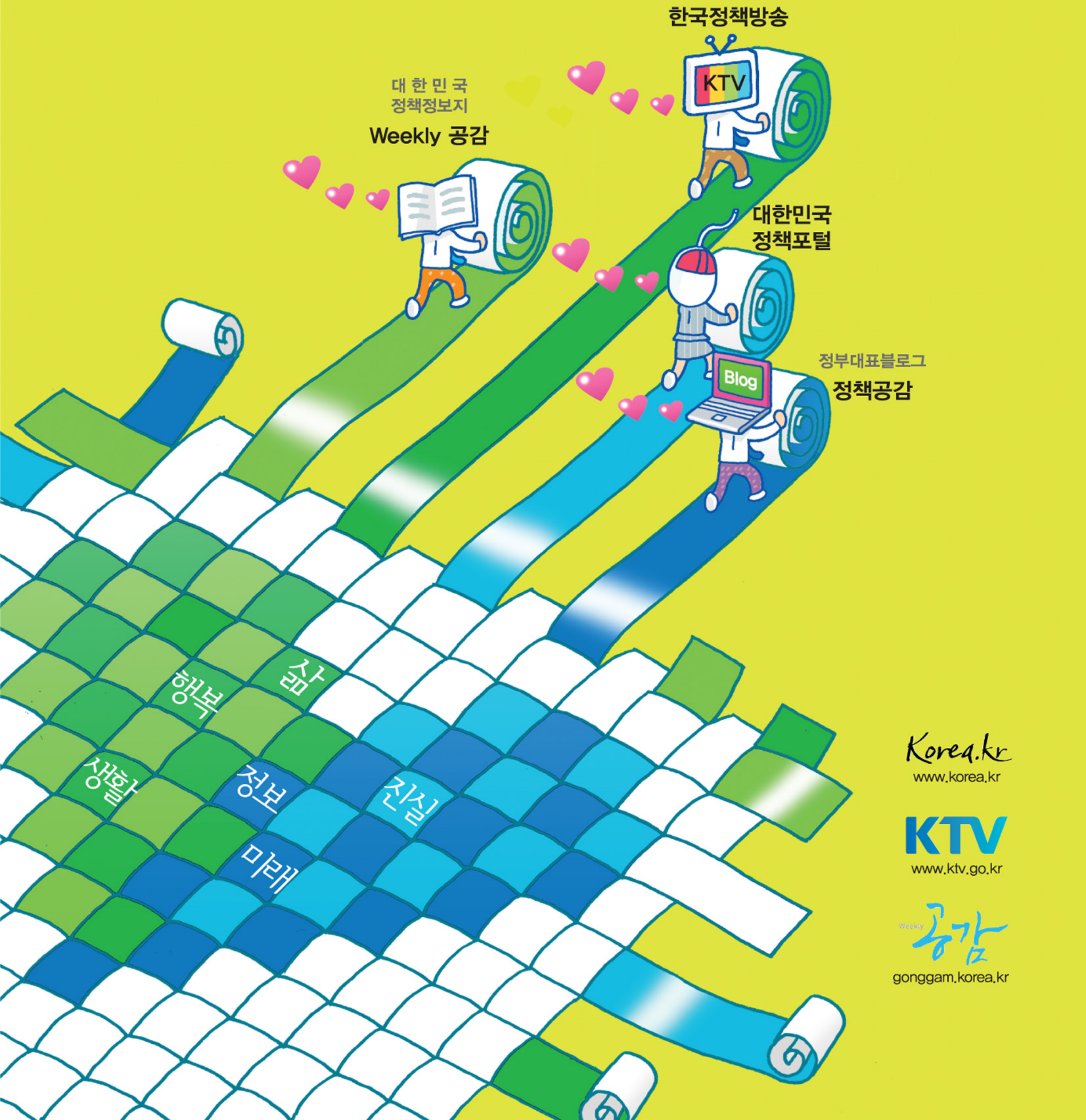
환경에 가치를 두는 깨어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은 기업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녹색소비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이다. G

글과 사진 · 정희정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책임여행 전문여행사

리스판서블트래블닷컴	www.responsibletravel.com
슬로트래블	www.slowtravel.com
그린글로브	www.greenglobe.org
에티컬이스케이프	www.ethicalescape.co.uk
윤리적 여행자	www.ethicaltraveler.org
지속가능한 여행	www.sustainabletourism.net
글로벌익스체인지	www.globalexchange.org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보는 방법



Korea.kr
www.korea.kr

KTV
www.ktv.go.kr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1.그린 홈
그린 홈은 집 안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하고 탄소 배출을 '제로(0)'로 하는 친환경 주택을 뜻한다. 실내 난방과 냉방 등을 위해 석유나 석탄 등 탄소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신 태양광과 지열,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2.지붕
지붕 위에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태양열 온수기도 설치해 물을 데운다. 마당 한쪽에는 소형 풍력발전기를 세우거나 지하에는 지열을 활용한 발전시설도 설치해 기후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가전제품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에너지 등급 표시를 꼭 확인한다.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제품일수록 고효율 에너지 등급 표시가 된 제품을 구입한다. 대기전력을 50퍼센트 이상 줄일 수 있다.

4.창문
열을 많이 빼앗기는 창문은 3중 유리로 만들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차가운 바깥 공기를 실내 온도 수준으로 올린 뒤 집 안으로 유입되게 하는 환기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집에서 지구를 웃게 하는 17가지 방법 강추!

일상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친환경 제품과 개인 컵을 사용하고 쓰지 않는 제품의 전원을 끄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우리는 수천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17가지 녹색소비법을 강추한다.



5.플러그
TV, 라디오, 충전식 청소기…. 많은 전자제품들이 겉으로는 꺼져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대기전력이다. 대기전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제품 사용이 끝난 후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으면 된다. 그러면 집 안의 전기소비량이 10퍼센트 정도 줄어든다. 각각의 전원부에 스위치가 달린 멀티 탭을 사용하면 매번 플러그를 뽑는 수고를 덜 수 있다.

6.장바구니
한국인의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1억5천만~2억 장 사이이다. 일회용 비닐봉지 유상판매제도가 도입된 후 사용량이 줄었지만, 반대급부로 유통업체에서만 투명 롤백이 연간 6억 장 이상 사용되고 있다.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갈 때는 천으로 된 장바구니를 장만해서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자.

7.세탁
세탁기 빨래는 찬물 코스로 한다. 더운 물 코스를 쓸 때보다 에너지 소모도 적고, 옷감도 덜 상한다. 1백만명의 인구가 더운물 대신 찬물 빨래를 하면 연간 2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8.냉장고
냉장고는 '에너지 먹는 하마'다.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 해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9. 개인 컵

어디를 가든 나만의 컵과 함께 움직이자. 직장에는 개인 컵을 두고, 되도록 종이컵을 쓰지 말자. 한 번 쓰고 버린 일회용 컵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행해 20년이 지나야 겨우 분해된다. 일회용 컵을 굳이 썼다면, 커피전문점에 반납하고 할인쿠폰이나 사은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자.

10.에어컨

적정한 실내 온도를 지키자. 여름에는 섭씨 26~28도, 겨울에는 18~20도 정도면 된다. 더우면 에어컨 대신 창문을 자주 열자. 구형 에어컨 대신 절전형을 쓰면 1백4그램 정도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13.종이 및 신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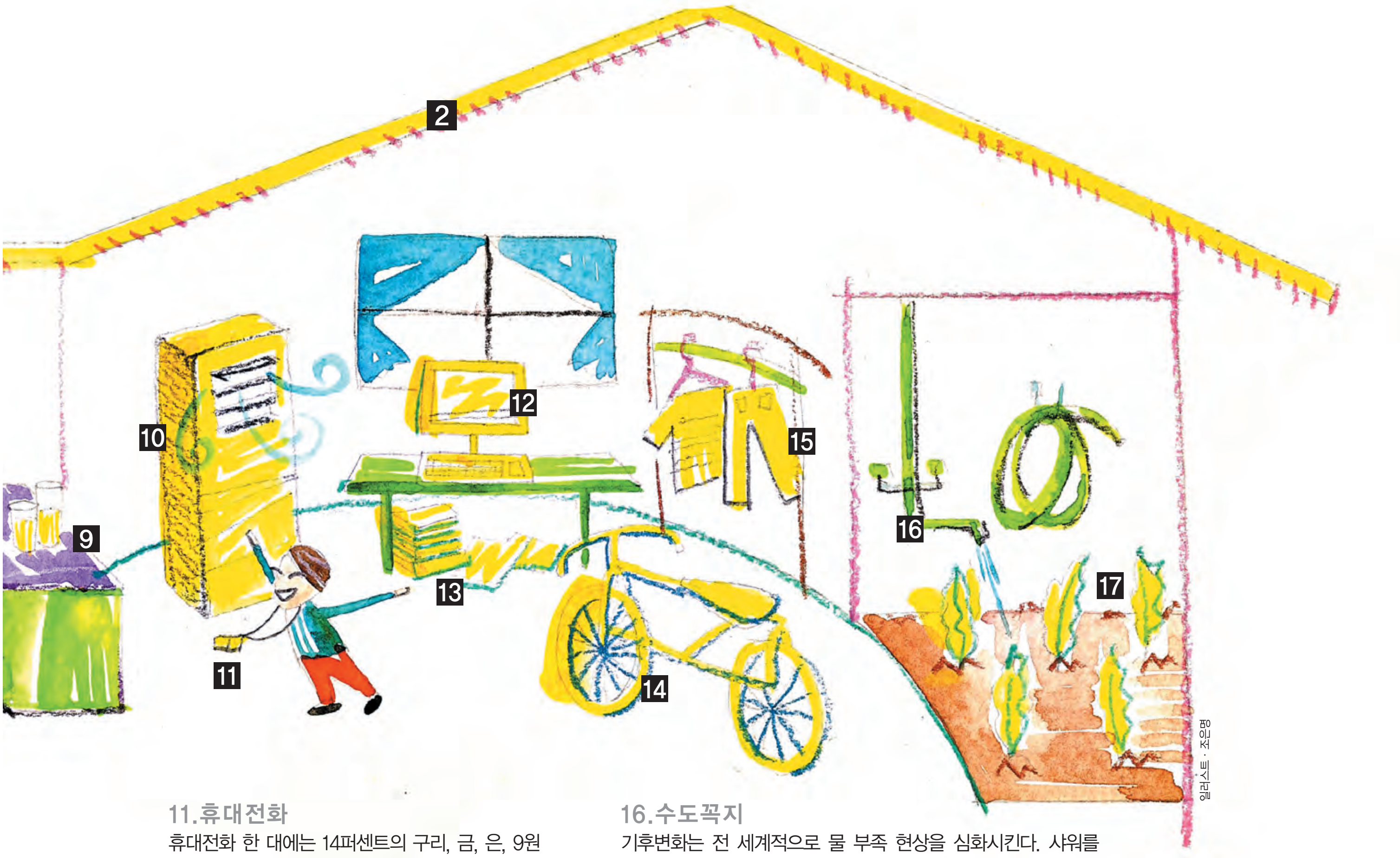
종이는 3~5번 정도 활용하면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해 매립장으로 직행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종이 활용을 줄이는 게 좋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각종 청구서를 e메일로 전환하는 것.

14.자전거

출퇴근할 때나 장을 보러 가까운 곳을 이동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자.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오는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일석이조다.

15.아이들 옷

금방 작아 못 입게 되는 아이들 옷은 물려 입거나 중고매장을 이용한다. 꼭 버려야만 하는 옷이라면, 분리수거함에 버린다. 깨끗한 옷은 손질해 제3세계 국가로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옷은 부직포와 농업·공업용품의 재료로 쓰이도록 한다.



일러스트 · 조은명

11.휴대전화

휴대전화 한 대에는 14퍼센트의 구리, 금, 은, 9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백금이 들어 있다. 헌 휴대전화는 버리지 말고, 반드시 반납하자.

12.컴퓨터

1백만명이 컴퓨터를 끄고 퇴근한다면 해마다 4만 5천 톤의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컴퓨터를 끄거나 적어도 대기 모드로 전환한다. 절전 기능을 설정하면 연간 1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16.수도꼭지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 샤워를 1분만 짧게 끝내도 매년 1천9백 리터 가까운 물을 아낄 수 있다. 샤워 꼭지는 절수형으로 바꾸고, 욕조에 목욕물을 받을 땐 3분의 2 정도만 받아 쓴 후 다 쓴 물은 세탁물로 활용하자.

17.미니 정원

베란다나 집 안 곳곳에 상추나 토마토를 심는 미니 정원이나 한 뼘 텃밭을 만들자. 녹색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나무 한 그루는 두 사람이 평생 마실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한다. G

글 · 정지연 기자



동아DB

녹색소비 아홉가지 수칙

환경을 고려하는 녹색소비는 거창하지 않다. 장바구니 갖고 다니고, 에어컨 덜 켜고, 환경인증 상품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녹색생활로 이끄는 실천수칙들을 짚어본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키 활주로'로 알려진 볼리비아의 차칼타야 빙하(해발 5216미터)가 녹아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구온난화의 여파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먹는 음식물,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주는 온갖 종류의 상품과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쓰고 버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멈출 수는 없지만 저탄소 녹색 소비·생산으로 체질을 바꾼다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알려주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가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다. 이는 인간이 현재의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배출된 오염물질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땅과 바다의 면적을 의미한다.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인류의 생태발자국은 이미 지구 생태용량을 40퍼센트 초과한 상태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도의 생태발자국은 3.7헥타아르(ha)로 세계 평균인 2.7헥타아르보다 40퍼센트를 더 쓰고 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하지 않고 우리보다 소비수준이 낮은 나라 사람들에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경을 고려하는 저탄소 녹색소비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하지 않거나 혹은 다르게 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생활을 실현하는 방법들이다.

1 넥타이 풀고 냉방 온도 높이고

2005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무실에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풀거나(Cool Biz) 겨울철에는 웃옷을 입도록(Warm Biz) 권했다. 일본정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여름철 사무실 온도를 섭씨 2도 높일 경우 연간 1백60~2백9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3천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직장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는 하절기 기간을 5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지난해보다 1개월 늘였다. 환경부는 기후적응 복장을 유통업계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다림질이나 드라이클리닝을 덜 해도 되는 옷을 골라 입는 것 역시 에너지를 덜 쓰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방법이다.

2 뚜벅이족 · 자전거족 되면 나도 녹색지킴이

환경부와 그린스타트(www.greenstart.kr)는 최근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만들었다. 이 계산기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25킬로미터를 자전거로 출퇴근할 경우 탄소가 배출되지 않지만 지하철은 0.04킬로그램, 버스는 0.69킬로그램, 승용차는 무려 5.25킬로그램을 배출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가 훨씬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면, 경제속도(60~80킬로미터/시간)를 준수하고 정속 주행을 하면 속도 변화가 큰 운전보다 연료를 최대 6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할 때는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분을 공회전하면 1킬로미터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된다.



동아DB

산악인 엄홍길, 배우 박상원 등이 참여한 쿨비즈 패션쇼. 노타이 근무는 CO_2 줄이기에 기여한다.

3 이왕이면 탄소라벨 제품을 구입하자

최근 탄소라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소라벨은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마크다.



탄소라벨이 있는지를 살펴 이왕이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녹색 소비자의 자세다. 이 제도는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시중에는 우유나 두부 등 식품뿐 아니라 가구류, 세탁기 등에도 이 라벨이 붙어 있다.

4 '아나바다' 운동 동참해 보자

무조건 새것, 큰 것을 찾을 게 아니라 쓰던 물건을 다시 써 자원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는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주택가나 상가 주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 쓰던 물건을 기증하면, 단체들은 이를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수선해 제3세계에 기증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금은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다운가게(1577-1113),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의 녹색가게(032-665-5828)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에 이런 단체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방문해보자. 경기 과천시에 살고 있는 필자는 새 학기를 맞이해 아이의 교복이나 학용품을 녹색가게에서 저렴하게 구입하고, 아이 발이 커져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신발을 기증한 적이 있다.

5 6천여 친환경 제품 골라볼까

녹색소비의 기본은 이왕이면 친환경 상품을 사서 쓰는 것에서 출발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친환경 상품은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일부 재활용 제품은 품질이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친환경 상품이 6천여 종류나 된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다른 제품과 비슷해졌으며 디자인도 깔끔해졌다. 시중에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친환경상품종합정보망(www.ecoi.go.kr)을 참조하면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다.



동아DB

소비자들이 경기도 인증 G마크를 받은 친환경 쌀을 살펴보고 있다.

저탄소 녹색소비 지침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모두 녹색제품을 쓰고
녹색소비를 실천할 때 기업도 녹색상품을
생산하고, 녹색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6 탄소마일리지 제도로 가계에 보탬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탄소마일리지 제도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 제도는 전기, 연료, 수도 등 에너지 사용자가 전년도와 금년도 에너지 사용량을 정해 사용절감액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http://energy.gangnam.go.kr)의 경우 가정이나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에서 에너지 절감으로 이산화탄소 10킬로그램을 감축할 때마다 마일리지 1포인트를 부여하고, 1포인트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10킬로그램을 감축하려면 도시가스는 4.3세제곱미터, 상수도는 17세제곱미터, 전기는 23킬로와트를 절약해야 한다. 강남구청에서는 개인은 최고 10만원, 학교는 최고 5백만원, 기업은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강남구의 총 22만 가구 중 현재 11만5천 가구가 참여해 그중 4만5천 가구가 탄소마일리지 혜택을 받았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난 6개월 동안 강남구는 온실가스를 총 1만1천 톤 줄였다.

7 채식 위주 식단, 건강까지 덤으로

모터로 움직이는 교통수단과 가축 가운데 어느 것이 대기 중 온실가스를 더 증가시킬까. 정답은 가축이다. 놀랍게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8퍼센트가 가축에서 나온다고 한다. 소 1만 마리가 내뱉는 트림은 하루 2백20톤 가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또 가축의 배설물에서는 아산화질소가 나온다. 목축을 위한 산림 벌채나 비료 생산, 육가공 공장에 대한 에너지 공급 등 부수적인 일까지 따져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도 많이 쓰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비해 연비가 4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식품군에서는 채소나 과일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할을 한다. 붉은색 육류에 비해 생산 에너지를 대략 4분의 1밖에 안 쓴다. 그러니 이왕이면 육식 위주의 식단을 채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채식은 환경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다.

하지만 고기를 끊고 살 수 없다면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는 것이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다. 쇠고기를 1킬로그램 생산하려면 곡물 7킬로그램이 사료로 쓰이는 반면, 돼지고기는 4킬로그램, 치즈나 계란은 3킬로그램, 닭고기는 2.2킬로그램 정도면 된다. 유엔의 한 보고에 따르면 쇠고기 1킬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유럽산 승용차로 2백50킬로미터를 달렸을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동아DB



신세계백화점의 친환경 의류 코너.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녹색소비의 기본이다.

8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고르자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를 염두에 두고 먹을거리를 고른다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푸드 마일리지란 식재료가 생산지에서 운송수단을 거쳐 우리 집까지 오는 데 소요되는 거리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비료, 항생물질, 포장용 종이, 플라스틱 등 생산과 유통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푸드 마일리지는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식품을 소비한다면 그것이 곧 녹색소비다. 외국의 경우 로커보어(Locavore)라고 해서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1백6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음식은 먹지 않는다.

그러니 장을 볼 때는 가격이 싸다고 수입산을 고를 게 아니라 국내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한살림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산 쌀 8킬로그램은 중국산보다 온실가스를 5백22그램 더 적게 발생시키고, 국내산 간장 9백그램은 같은 양의 미국산 간장보다 온실가스를 5백70그램 적게 배출한다고 한다.

9 제철 채소를 먹는 것도 녹색소비

앞서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음식을 고르라고 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국내에서 재배된 식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국내산만 고집하면 온실 재배 채소나 과일을 먹게 된다. 그러면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우리가 겨울철에 국산 딸기나 수박을 먹으려면 그만큼 비닐하우스에서 경유를 태워 온실을 덥혀 재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이 대안이다. 싸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제철 음식은 곧 탄소저감 음식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 푸드 마일리지 운동은 가정보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구내식당과 같은 곳이 더 적합할 것이다. 개인이 겨울철에 딸기를 사먹고 싶다는 욕구를 억제하기는 힘들지만, 구내식당 식단 매뉴얼에 제철 과일을 제공한다는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소비는 거창하지 않다. 위에서 소개한 아홉 가지 지침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위력은 매우 크다. 우리 모두 녹색제품을 쓰고 녹색소비를 실천할 때 기업도 녹색상품을 생산하고, 녹색기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녹색소비는 녹색성장을 이끄는 힘의 원천이다. G

글 · 문승식(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상품실장)

지식경제부 '탄소캐시백' 홍보대사 탤런트 최수종

이산화탄소 줄이면 포인트가 차곡차곡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이 5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깨끗한 지구 만들기에 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조영철 기자

안녕하세요, 탤런트 최수종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한 역할을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탄소 캐시백(Carbon Cashbag)' 홍보대사입니다. 제가 탄소 캐시백 홍보대사를 맡게 됐다고 몇몇 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들 "그것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이 많이 생소한가 봅니다. 그만큼 제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먼저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부터 드릴게요.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고, SK마케팅앤컴퍼니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거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탄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초에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탄소 제품 구매하면 포인트 제공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은 국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소비행태를 전환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 금융계, 지방자치단체들이 뭉쳤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은 주 운영사인 SK마케팅앤컴퍼니를 제외하고 경북도, 대성쎌틱, 쌍용, TG삼보컴퓨터, 캐논코리아, 동서식품, 유한킴벌리, 이마트, 무림오피스웨이, 국민은행, 하나은행, 코레일네트웍스, 서울메트로 등 13곳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여러 기업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더군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북도를 비롯해 제조사, 유통사, 금융사는 포인트를 제



동아DB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면 탄소 캐시백 포인트가 적립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공하고, 코레일네트웍스는 마일리지 연계 사용을 추진하며,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역사 내에 쿠폰수거함을 설치해 관리합니다.

특히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의 품목 대상에는 6개 제조업체의 8개 품목, 60종이 해당된다는군요.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성쎌틱의 S라인 콘덴싱보일러 10종, 쌍용의 쌍용자전거 12종과 FLA자전거 18종, 삼보컴퓨터의 데스크탑과 노트북 4종, 캐논코리아의 사무가전기기 10종, 동서식품의 커피 제품 3종, 유한킴벌리의 휴지 제품 3종 등입니다.

> “탄소 캐시백 포인트는 탄소 캐시백 카드나 OK캐시백 카드 제시, 쿠폰을 수거함에 제출하면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탄소 캐시백 가맹점, 주유소를 제외한 OK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 캐시백 포인트는 탄소 캐시백 제휴사를 이용할 때 탄소 캐시백 카드나 OK캐시백 카드를 제시하거나, 탄소 캐시백 적용 상품에 인쇄된 쿠폰을 수거함에 제출하면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 캐시백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느냐고요? 간단합니다. 홈페이지(www.co2cashbag.com)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 발급받거나, 국민은행에서 탄소 캐시백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제공받은 포인트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적립한 포인트는 탄소 캐시백 가맹점, 주유소를 제외한 OK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전기, 상수도, 가스 등과 같은 생활요금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이나 나무 심기 등과 같은 저탄소 공익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참, 공익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031-260-4542)에 연락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이밖에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정부 또는 지자체 탄소마일리지, 코레일 고객마일리지와 탄소 캐시백 포인트를 연계함으로써 소비자가 적립한 다양한 포인트를 통합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탄소 캐시백 포인트 사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포인트 10퍼센트 녹색성장 위한 공익활동에 사용

이 프로그램의 내용 중 제 마음을 쏙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인트를 적립받을 때마다 포인트의 10퍼센트가 녹색성장을 위한 공익활동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저절로 좋은 일을 하는 셈이죠. 어때요? 이 정도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포인트는 쌓고…. 자, 이만하면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점도 알게 됐을 거예요. 부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고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게 해줄 것이고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 또한 이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친환경 캠페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

정리 · 백경선 객원기자



"착하게 쓰면… 福이 와요"

친환경 사업자 융자지원 · 소비자엔 포인트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각종 공산품에 대해 무역환경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 상품이 아니면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됐다.

녹색산업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과 함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산업에 대한 막강한 지원이 있어도 그것을 소화해줄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녹색성장의 길(미래기획위원회)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참살이(웰빙)'와 '건강'이 화두로 떠오른 이래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국내 친환경 상품 시장 규모는 2003년 1조5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12조원으로 4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었다. 2012년에는 그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도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시장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미국의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시장 규모는 2천3백60억 달러에 달했고, 일본의 친환경 상품 시장 역시 6조 엔 규모였다. 매년 친환경 상품 시장은 8~10퍼센트의 고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정책은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이에 따른 국내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발맞춰, 제품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형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소라벨링 제도 도입

우선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라벨링 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제품군별로 탄소성적 산정 지침을 개발하고, 탄소성적 표시 제품을 인증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3백개의 저탄소 제품을 인증한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친환경 상품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고, 제품 구매자에게도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세계 이마트와 탄소성적표지 제품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우수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마크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사무기기와 가전제품, 건축자재와 가구 등 1백34개 품목을 선정했고, 2012년까지 친환경 서비스와 대체에너지 이용 상품, 대량소비 제품 등 20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는 우수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과 기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게는 융자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에는 친환경 설계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까지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생산 및 유통기업을 2천 개사로 확대하고, 친환경 제품 시장 규모도 2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스토어 인증제 단계적 확대

정부는 대형 유통매장의 건축과 물류체계, 취급상품 등의 친환경성과 탄소 효율성을 평가해 2012년까지 그린스토어



동아DB



연합

정부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마크 대상 품목(위)을 확대하고 유통업체와 손잡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Green Store) 2백 군데를 지정하고, 녹색매장 1천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대형 유통매장 서비스를 환경마크 인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린스토어는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그린스토어로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는 세제 지원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과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MRA)을 잇따라 체결해나갈 방침이다. 2008년 현재 일본과 중국, 호주 등 6개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는데 2012년까지 유럽과 미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녹색구매 세계대회 유치

일반 소비자들의 저탄소 녹색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구매를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을 주제로 녹색구매 세계대회를 유치해 오는 10월쯤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과 산업, 유통, 일반 소비자 등 네 부문에서 운영될 세계대회에는 부대행사로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녹색기술과 친환경 상품의 수출 상담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2016년까지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에코플라자'(저탄소 녹색성장 체험학습관)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녹색기술과 녹색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체험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아DB



대형 유통업체들은 상품을 만들 때 발생되는 탄소량을 표시한 탄소라벨 부착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소비자 식품 선택 관련정보 확대

정부는 식품의 원산지와 인증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대해 저탄소형 식품의 소비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는 물론 지리적 표시와 우수농산물 인증(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대상 품목의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거리 수송을 하는 수입 원료를 국내 농산물로 대체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의 원료 수입 및 수송 거리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품목별 원산지에 따른 푸드 마일리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생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푸드 마일리지를 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G

정리 · 구자홍 기자

동아DB



정부 정책은 저탄소형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 SDI 두 연구원이 '무연 PDP 모듈'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다. 전남 신안군에 자리한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그린 아이디어 반짝! 생활공감정책 국민 공모

에코트리(Eco-Tree) 숲 만들면 어떨까요

녹색성장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그룹이 제안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힐 등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인 9천2백23건의 아이디어 중 베스트로 선정된 대표적 아이디어 다섯 가지를 살펴본다.

공공시설물 여유 공간에 민간 태양광 발전

우리 주변에는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 체육시설과 발전소 등 공공시설물이 적지 않다.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있는 이 같은 시설물들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 한정돼 설치가 허용돼왔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쉽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시설물 여유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 등 보상비가 필요 없게 돼 전국 공공시설물에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해 없고 유지 · 보수가 용이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명과 환경 가치 일깨우는 에코트리 프로젝트

"인터넷에서 누리꾼(네티즌)들이 활발히 참여하면 나뭇잎이 모이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한 그루의 나무로 심어져 에코트리 숲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에코트리 프로젝트'는 온라인 캠페인이 오프라인에서 현실화돼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는 기본 구상에서 출발했다. 일반 누리꾼은 물론 기업체와 환경단체, 기관 등이 '에코트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면 그 실적만큼 현실에서 에코트리 숲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에코트리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나무 심기'는 물론 에코트리 마일리지와 환경교육, 나무 기르기와 숲 만들기 게임, 나무 이야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참여의 길을 열어놓게 된다. 누리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손수제작물(UCC) 코너도 개설하고 이벤트도 진행한다. 에코트리 홈페이지가

활성화될수록 에코트리 숲이 더욱 풍성해지는 온·오프 연계 프로그램인 셈이다.

에코트리 숲에는 친환경에너지 체험시설과 탄소버스, 친환경에너지 홍보를 위한 교육관 등이 설치돼 에코트리 테마공원을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환경생태체험관과 어린이 탄소학교 등 환경교육과 체험,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한 녹색체험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에코트리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기업이나 참여 시민에게는 에코트리 마일리지를 부여해 탄소배출권을 인증하고,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카드 충전 등 혜택도 부여한다.

지자체 해외 자매도시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매결연을 한 해외 도시는 무려 9백96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업적 교류라기보다 우호 차원의 교류나 관광, 도시 알리기 등 단순 행정교류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왕에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해외 도시들과 지자체, 중소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업적 교류로 확대해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하자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요지다.

즉, 지자체의 신용도와 중소기업의 우수상품과 기술, 금융기관의 자금을 결합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수출의 틈새시장 개척으로 국가의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우리나라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한 해외 도시 중에는 저개발국가의 도시가 적지 않다. 이들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국민,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를 담당한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자매도시에서 행해지는 녹색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탄소배출권 확보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나 러시아 등의 자원이 풍부한 자매도시에서는 바이오디젤과 가스, 식량 등 해외자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축분뇨 활용한 농가형 소규모 바이오가스 발전

국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연간 4천5백만 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83퍼센트가 퇴비나 액비로 사용되고, 17퍼센트는 바다에 버려진다. 그러나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돼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농가형 소규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보급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또는 중·대규모 축산농가에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과 소득세 공제 등 혜택을 주는 안이 제시됐다. 바이오가스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20원씩 인상하고, 개별 축산농가에는 매입가격에 일정한 보너스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인증 시스템 구축

환경과 경제성장, 두 가지 가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이나 도시, 마을과 건축물에 일정 절차의 정부인증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해 해당 기업 등이 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저탄소 녹색 건축물 등에는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저탄소 녹색건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자는 취지다.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기업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정부입찰에서의 가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G

정리 · 구자홍 기자

동아DB





바이오가스노드 제공

'에코트리 프로젝트'는 온라인 캠페인이 오프라인에서 현실화돼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신혼부부 나무심기에 참가한 신혼부부(왼쪽).
독일은 국민의 공감대와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 바이오가스 플랜트 분야의 강국이 됐다. 독일 농부들이 바이오가스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다.

일본 현지 한식 프랜차이즈 한식당 '처가방' 오영석 대표

신주쿠에 김치 '매운' 깃발 꽂다

의상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우연한 기회에 '김치 전도사'가 된 오영석 대표. '기무치'에 맞서 '김치'를 지켜내고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봤다.



일본에서 김치와 한식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오영석 대표의 얼굴에는 '기무치' 틈에서 '김치'를 지켜낸 자부심이 배어 있다.

서울의 명동과 비견되는 일본 도쿄 중심부 신주쿠 오츠야(新宿區 四谷)에는 일본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흔치 않은 김치박물관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요리를 판매하는 '처가방(妻家房)' 뒤쪽으로 이어지는, 비록 33평방미터가 채 안되는 자그마한 규모의 김치박물관이지만 금싸라기 같은 신주쿠 땅에 한국 김치를 알리는 첨병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곳 김치박물관과 한국식품점 처가방, 그리고 같은 건물 2, 3층의 프랜차이즈 한식당 처가방을 운영하는 이가 주식회사 영명의 오영석(57) 대표다.

오 대표가 일본에 낸 프랜차이즈 한식당 처가방은 현재까지 20곳. 백화점 등의 식품점도 15개에 달한다. 영명의 매출은 2006년 처음 20억엔대를 넘어 21억4천만엔(약 2백76억 3천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30억엔대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

오 대표는 "이러한 성공은 의상디자인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 이어진 좋은 인연과 우연, 아내의 내조 덕분"이라고 공(功)을 돌렸다.

대구 태생인 그의 이력을 되짚어 보면 김치나 요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영남대 화학과 2학년을 다니던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와 의상실 견습생으로 의상디자인 공부를 했다. 등록금을 들고 가출한 그였지만 누나 셋과 살면서 터득한 여성복에 대한 감각만큼은 내심 믿고 있었다. 26세이던 1978년 서울 명동에 '사라미'라는 의상실을 내고 의상디자이너의 길을 걷던 그는 1984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입체 재단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 입체 재단을 배워 일류 의상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했죠."

일본 도쿄의 문화복장학원에서 공부하던 오 대표는 도쿄 게이오백화점에 3주간 연수를 하러 갔다가 여성복 담당 오기노 오사무 부장에게서 게이오백화점 취직을 권유받았다. 오기노 부장은 오 대표가 가족 모두를 이끌고 30대 나이에 의상디자인 공부를 하러 온 것을 안쓰럽게 생각했다.

오 대표는 "당시 내가 게이오백화점에 취직한 것만 해도

외국인 취직이 어려운 일본백화점 업계에서 큰 화젯거리였다"고 회상했다.

몇 년간 게이오백화점에 근무하다 '한식당'으로 그의 인생이 선회한 것은 우연이었다. 오 대표는 일본으로 건너가 낳은 아들이 1989년 돌을 맞자 일본인 직장 상사들을 집에 초대해 한국음식을 대접했다. 오 대표의 부인 유향희(58) 씨가 만든 한국음식을 맛본 직장 상사들의 반응은 경탄 일색이었다.

당시까지 일본인들이 아는 한식이라곤 일본어로 '야키니쿠'로 불리는 불고기가 전부였다. 일본인들 사이에 불고기란 '정력에는 좋지만 굽는 냄새가 심해 옷 버릴 생각을 하고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는 청결치 못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가정요리를 먹어보니 갈비찜, 파전, 제육보쌈 등 메뉴도 다양하고 깔끔하면서 맛이 있어 "놀랍다"는 반응이었던 것.

한국요리 학원 설립해 전통요리 보급할 것

마침 1993년 게이오백화점에서 식품점을 열면서 백화점 측에서 오 대표 아내의 음식 솜씨를 믿고 한국식품코너를 열자고 제안했다. 당시 옆 가게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며 입점을 반대했지만 마늘이 '스태미너 음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러한 반응은 사그라들었고,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 이후 한류 열풍이 불면서 오 대표의 사업은 순풍을 탔다.

물론 고비도 있었다. 1995년 게이오백화점에 "김치가 썩었다"는 고객 항의가 들어왔다. 알고 보니 양파를 갈아 넣은 깍두기 국물이 발효해 보글거리는 것을 썩은 것으로 오해한 것.

"그래서 김치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자 김치박물관을 생각해냈습니다."

오 대표는 1996년 10월 김치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김치박물관의 문을 열었고 같은 해 12월 한식당 프랜차이즈 처가방 1호점을 김치박물관과 같은 건물에 냈다. 기존 한식당들이 인테리어 등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생계형 식당'이었다면, 깔끔한 인테리어의 처가방은 곧 일본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어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 배우 초난강(쿠사나기 츠요시)도 처가방 단골이 됐다.

오 대표는 "처음부터 일본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처가방의 성공 비결"이라며 "인테리어를 모두 일본인 기호에 맞췄고 고객 접대도 푸드코디네이터가 맡아 접대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20여 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경상도 억양이 뚜렷한 오 대표는 개인적인 성공에 머물지 않았다. 1996년 전북도의 전북물산전을 주선한 후 지금까지 전북도의 도쿄사



처가방을 찾은 일본 배우들과 함께한 오영석 대표(왼쪽 끝). 오 대표로부터 두 번째가 배우 초난강이다.

무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의 회사가 사용하는 전체 식재료의 50퍼센트는 한국에서 직수입된다.

"제대로 된 한식의 맛은 한식재료에서 나옵니다. 부안의 곰소 소금, 광천의 새우젓, 청송 고추, 서산 마늘 등을 직수입합니다. 처음 김치를 많이 담그지 않을 때에는 소금 1백킬로그램이 필요했는데 소량 구입이 불가능해 1톤을 수입하기도 했죠."

한국인다운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의 고집에 큰딸 지선(29) 씨와 동생 지영(27) 자매는 각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와 미대를 졸업했다. 특히 지선 씨는 궁중음식 기능보유자였던 고 황혜성 선생에게서 한식을 배웠다.

오 대표는 앞으로 한국요리학원을 만들어 전통 한국요리를 일본에 보급하는 것이 꿈이다.

처음부터 일본인을 상대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선 것이 처가방의 성공 비결. 인테리어를 모두 일본인 기호에 맞췄고 고객 접대도 푸드코디네이터가 맡아 접대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

"언젠가 오츠야 본점 건물을 다시 지어 김치박물관과 한식당, 식품점, 학원이 한곳에 들어선 한식 전파의 중심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치박물관이 있는 건물 주변 땅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다. 그는 오는 7월 서울 청담동에 가정식 일식당을 오픈한다.

"흔히 일식에 대해 스시나 회 정도만 알고 있지만 일본 가정요리도 건강식이 적지 않습니다. 음식을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를 도우면서 우리나라의 음식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기무치' 틈에서 '김치'를 지켜낸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국책은행 사회적 소임 다하는 기업은행

청년구직 '잡월드' 3천명 '잡'았다
(job)

기업은행(IBK)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섰다. 간부직원들이 임금을 깎아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인턴을 상반기 채용된 2백명 외에 하반기에도 2백명을 추가 모집하고, '잡월드'를 통해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금융권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데 급급했던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판매하는 L 사장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했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번번이 "은행 사정이 급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던 것. 결국 L 사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업은행 문을 두드렸는데 "번창하시라"며 흔쾌히 대출을 해주자 날아갈 듯 기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처럼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대출을 통해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는 데 역점을 뒀다. 기업은행 유상정 여신기획부장은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연쩍어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은 최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반납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은행장이 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반납하고, 부점장급 간부직원까지 임금의 5퍼센트를 반납했다. 또 대졸 초임을 20퍼센트 인하해 마련한 재원으로 상반기 채용된 2백명 외에 하반기에도 2백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업은행의 청년인턴 채용은 청년인턴제의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드렛일만 하는 인턴'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청년인턴 경험이 이후 사회생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

기업은행이 특화한 '아이프론티어(I-Frontier)' 인턴십 모델은 직장체험 기회를 단계별로 제공,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이로써 인턴과 은행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는 것. 김영찬 홍보부장은 "청년인턴 과정을 I-Frontier라는 브랜드로 특화해 참여하는 인턴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I-Frontier는 기업은행의 인턴십을 통해 청년인턴 자신(I)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Improve)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론티어(Frontier)는 청년인턴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취업의 경계를 넘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IBK인턴제… 일자리 연결에 급여 지원까지

I-Frontier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은행에 대한 이해와 조직 적응을 위한 3개월의 '인턴 코스', 숙련단계인 3개월의 '레지던트 코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취업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닥터케어 코스' 등이 그것이다.

김 부장은 "인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계획과 준비는 물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업은행은 2월 3일부터 '기업은행 잡월드'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용로 행장이 2008년 3월 18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대연테크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모습.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대출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왔다. 고객 중심으로 탈바꿈한 기업은행 로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I-Frontier를 통해 인턴에 참가한 이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청년실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하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은행이 개설한 '기업은행 잡월드' 역시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2월 3일 온라인상에서 본격 출범한 '기업은행 잡월드'는 하루 평균 취업자 수가 50명 이상을 기록하며 5월 8일 3천명을 돌파했다.

기업은행은 근로자를 구하고 채용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채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한 '특별우대펀드'를 조성, 3년간 3백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원은 은행의 일반관리비 등 자발적인 경비절감을 통해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이자와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청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거래 중소기업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BK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실시한다. 이 제도를 통해 1백 개 중소기업에 한명씩의 청년인턴을 연결해 주고, 1인당 월급여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1백만원(최장 6개월)의 급여를 지원해준다. 인턴 근무기간이 종료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지원한다. G

글 · 구자홍 기자

윤용로 기업은행장

"국책은행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경기순응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경기조정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윤용로 행장은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때 대출을 자제하고, 금융위기로 다른 은행들이 몸을 사릴 때 적극적인 대출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적인 대출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최강의 은행으로 성장하는 것이 기업은행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사업부문별 역량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소외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출해주는 'IBK환승론'과 저소득층의 전세·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 서민 전용의 고금리 예금상품인 '서민섬김통장' 등이 대표적이다.

윤 행장은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개발해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용위기 극복 일자리 나누기 앞장 모범 기업들

“어려울 때 나누면 나중에 힘이 돼요”

노동부가 5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백인 이상 사업장 기준 일자리 나누기운동 참여율은 24.7퍼센트다. 일자리 나누기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와 더불어 일자리 나누기 운동의 현황을 짚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실업자는 93만 3천명이라고 한다. 당초 1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개월 만에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신규 취업자는 2천3백52만명으로, 전년 대비 18만8천명이나 줄어드는 등 여전히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신규 채용으로 조직의 생산성 증대를 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위기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범 기업들이다.

서울 송파구의 휴다임건축사무소 전체 직원 7백50명 중 무려 70명이 올해 입사했다. 이 회사는 근무시간 단축, 임금 조정 등의 단순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감리와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데 최근 하수열에너지 분야로 진출하면서 신규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하수 열에너지 사업은 공공 하수관에 흐르는 하수의 열을 이용해 여름에는 냉방용으로, 겨울에는 난방용 온수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은 현재 카이스트(KAIST)와 협의 중이다.

이 회사 총무팀 임호빈 이사는 “단순한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신규 사업 분야를 개척해 신규 채용을 늘린 것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임금을 동결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는 지속적인 고용이 힘들다. 하지만 신규 사업 확장은 앞으로도 지속적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이 회사 직원들은 임금 동결에 합의한 상태. 매년 10퍼센트의 임금 인상을 해왔으나 경기가 어렵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조영철 기자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70명의 신규 채용을 이룬 휴다임건축사무소.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우수 노사협약 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농심도 올해 임금 인상분을 일자리 나누기에 돌리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지난 3월 31일 이 회사 노동조합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금년 임금 인상을 회사에 위임했다. 이에 회사도 임금 인상분을 신입과 경력 사원 채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팀 안종명 과장은 “5월 16, 17일에 걸쳐 2천5백명에 달하는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1차 면접을 마쳤다. 노사가 ‘일자리 나누기’로 상생의 경영을 펼쳐나가는 데 뜻을 같이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 공감대 확산 위해 노력해야

경기 남양주시의 유성운수는 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한 대신 1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노선 증가로 증차가 불가피해지면서 중형차 기사를 18명 충원한 것. 하루 17시간 근무와 격일제 운행이 근무조건인 이 회사에서는 대신 신규 채용한 중형차 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일부 단축해 비용을 절감했다.

경기 양주시의 성음악기는 전 직원(1백72명)의 임금 동결로 고용을 창출한 케이스. 통기타를 생산하는 이곳은 올해 생산라인에 10명의 신규 입사자를 맞아들였다.

5월 7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백인 이상 사업장 기준 일자리 나누기운동 참여율은 24.7퍼센트로 총 6천7백81개소 중 1천6백7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23퍼센트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북, 경남, 인천, 대구에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고용 수준을 높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지난 2월 노사민정이 경제위기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과 함께 각종 지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 고용정책과 정윤진 사무관은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중소기업 금융 우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 관련 고용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폄과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 우수 기업 포상을 연말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무급 휴업 중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와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해 빠르면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G

글 · 정지연 기자



동아DB

농심 노사는 임금 인상분을 일자리 나누기에 쓰기로 합의했다.

정부, 직업훈련 등 ‘엄마 일자리’ 늘리기 적극 추진



동아DB

여성 취업자는 올해 3월 현재 9백56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9천명이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 감소 인원 19만5천명 가운데 76.4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 악화 국면에서는 특히 여성이 고통을 더 부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여성이 실직할 경우 다시 구직을 하기보다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크다. 고용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여성 실업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가구소득 감소와 빈곤층 확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울러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30대 초 · 중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실업자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간병인, 산모 및 아이 돌보미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확대하고, 여성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육아 ·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가장, 저소득층 여성 등 실업의 특성에 맞게 취업 및 창업지원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성 실업자들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함께 생활안정자금 대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여기는 자전거특별시 창원입니다”

국내 첫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 전국 1위, 국내 최초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화려한 ‘자전거 이력’을 자랑하는 지역이 있다. 넥타이 부대의 자전거 행렬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를 찾았다.

창원시는 ‘자전거특별시’로 통한다. 자전거 관련 노선이 총 68개(2백14.3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만 15개(96.6킬로미터)로 전국 최장 노선인 데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46개 노선(96.2킬로미터),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7개 노선(21.5킬로미터) 등 도로 인프라부터 남다르다.

창원시는 2007년 3월 ‘범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시작했고, 이듬해 5월 14일 자전거 업무 전담부서인 ‘자전거정책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인 데다 공단도시인 창원이 대기오염 완화, 교통난 해소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면 ‘자전거’로 승부해야 한다는 박완수 창원시장의 판단이 주효했던 셈이다. 박 시장은 2년 반 넘게 ‘자출족’(자전거 출근족)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최의석 창원시청 자전거정책과장은 “창원은 1974년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인데 그때 이미 자동차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함께 조성됐다”면서 “지형적으로도 시내 평균 경사도가 3퍼센트 이내로 자전거 타기에 최적의 조건을 타고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처음 자전거정책과장으로 임명됐을 때를 떠올리며 “편안한 자동차 두고 굳이 자전거를 타나, 이름도 자전거정책과장이 뭔가 싫었는데 지금은 자랑스럽게 먼저 ‘자전거과장’이라고 소개한다”면서 “요즘은 전국 1백60여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한다”고 말했다.

68개 노선 총 2백14킬로미터… 전국 최고 인프라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또 지난 4월 25일~5월 31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을 열어 전국적 붐을 조성하자 자전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최 과장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방해되는 존재로 여기던 자전거를 동등한 1인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대우하기 시작했다”며 “그 증거로 도로에서 경적 소리가 사라



창원시내 곳곳에 설치된 ‘누비자’ 자전거. 누비자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 시스템이다.





졌다"고 전했다.

녹색 자전거도시 창원이 있기까지 일등공신은 '누비자' 시스템이다. '창원 곳곳을 자유로이 다니다'라는 뜻의 누비자는 '누비다'와 '자전거'를 합성한 용어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해 만든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 시스템이다. 회원카드를 시스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자전거를 빌릴 수 있고, 이용 후 자전거 보관대에 갖다놓으면 자동으로 반납 처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7단 변속기가 부착된 누비자 자전거는 핸들에 있는 계기판을 이용해 주행거리와 시간, 평균속도 확인까지 가능하다. 누비자 터미널은 창원시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집중 설치돼 있다.

특히 터미널 자전거 보관대에 부착된 위치추적 위성항법장치(GPS)와 잠금장치 등 도난방지 장치는 프랑스 '벨리브' 등 세계 유수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게 창원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행 초기 자전거 분실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벨리브와 달리 창원시의 누비자는 지난해 시행 이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도난사고도 없었다.

하승우 창원시청 자전거정책보좌관은 "자전거의 장점을 알면서도 일단 타고 나가면 계속 끌고 다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누비자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 '보관'과 '도난' 문제를 해결한 아이템"이라고 밝혔다.

2012년까지 누비자 5천대… 시 전역 자전거망 연결

지난해 10월 22일 20개 터미널에서 4백30대 자전거로 시작한 누비자의 가입 회원 수는 5월 10일 현재 7천7백34명. 20대 여성 가입률이 2천6백명(33.6퍼센트)으로 가장 높다. 교통비 부담을 느끼는 20대 미취업 계층에서 특히 선호도가 높고, 최근 계절적 요인과 경제위기 상황도 누비자 이용 인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자전거축전-2009 창원 바이크 월드' 축제가 열린 지난 5월 3~6일엔 5백9명이 회원으로 가입, 하루 평균 1백27.3명의 신입회원을 확보해 '행사' 효과를 톡톡히 봤다.

창원시는 5월 말까지 터미널 81군데와 8백 대의 자전거를 추가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최 과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인프라 확충, 둘째는 제도 개선, 셋째는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이다. 지금까지 많은 자치단체가 다양한 자전거정책을 추진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인프라 확충에만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자전거도로 조성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도록 하기 위해 지난



최의석 창원시청 자전거정책과장이 창원시내 누비자 터미널 안내도를 가리키며 누비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해 9월 국내 최초로 약 50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상당수 시민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2천9백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고, 본인이 사고를 냈을 때도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교차로와 주요도로에 적색 유도선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한 달에 보름 이상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3만원까지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시민 붐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여론주도층인 '통반장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창원시는 누비자 시스템을 발전시켜 1백 미터마다 대여소를 설치, 시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누비자 터미널 3백 군데, 누비자 자전거 5천 대를 설치하면 창원 전역이 자전거망으로 연결된다.

터미널 자전거 보관대에 부착된 도난방지 장치는 세계 유수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창원시의 누비자는 지난해 시행 이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도난사고도 없었다.

창원시는 또 자전거 전용 신호등, 자전거 육교 등을 설치해 자동차 위주의 교통문화도 바꿔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7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는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을 2020년까지 20퍼센트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박완수 시장은 "향후 5년, 10년 뒤 넘실거릴 자전거 물결 속에는 환경, 경제, 교통이라는 세 가지 사회적 보물과 건강이라는 개인적 보물이 있다"면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날 창원은 맑고 푸른 하늘을 가진 '녹색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경기 고양시 시범 운영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미리 걸러준다

새로 조제한 약이 기존에 먹고 있는 약과 맞지 않아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이제 그만.
약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처방 여부와 함께 먹으면 안되는 성분 포함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과 약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유현(35) 씨는 신장질환이 있어 6개월 전부터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4월 말 허리를 다쳐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네 가지 약 보름치를 처방받았다. 김 씨는 처방받은 약이 신장질환 약들과 함께 복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걱정이 됐지만 알아볼 방법이 없었다.

5월 초 신장내과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들른 김 씨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방전을 컴퓨터에 입력하던 약사로부터 신장내과에서 처방해준 약 중에 현재 복용하고 있는 정형외과 처방 약과 함께 복용해선 안되는 성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약사는 김 씨가 지금 복용 중인 약을 자신이 조제하지 않았는데도 약명까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직접 처방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약에 대해서는 의사나 약사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5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경기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등 9백80여 개소에서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안전 사용 유도… 내년 말 전국 확대 시행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명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파악되고, 중복 성분이 처방됐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모니터 상에 팝업 경고창이 뜬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 투약, 상호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 성분의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때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환자의 질병명 등 개인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명세 등을 설명해준다.

이렇게 하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한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며 시범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후 내년 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G

글·최호열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문의·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02-2023-7354)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500-3602)


4대강 살리기
제8화
2011년 팔당지역
글 이연수 그림 이호
묵납자루
잉어목 잉엇과
학명 : Acheilognathus signifer
아셰일로냐투스 시그니퍼
헉!
누구냐, 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람10823호입니다.
뭐? 누구?
국내 최고의 로봇공학 권위자이신 박사님들께서 개발하신 제품번호 0032P형, 가람 10823호입니다. 이 지역 수중구조물의 안전진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보와 댐, 제방 등 수중구조물들의 영상을 인간들에게 보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구조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아~
어제도 너랑 비슷한 애를 만났는데….
혹시 너, 수질 모니터링 로봇이랑 친척?
BOD 측정완료
0.89 ppm
친척은 아닙니다. 수질 모니터링을 담당한 로봇과 저는 개발하신 박사님들도 다르고 제작 공장도 다릅니다.
물 속에서 일한다는 점만 같습니다.
파팟!
김 박사
국내 수중로봇 분야 필생의 라이벌
이 박사
어라?
잰 또 뭐야?
저것은 0892C형으로 이 지역 강바닥의 청소를 담당한 은모래3091호입니다.
재도 다른 공장 출신이냐?
그렇습니다.
흠, 어쨌든 우리 사는 곳에 이렇게 하인들이 많다니 기분은 나쁘지 않군.
하인이라고 하시니 저는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취약계층 근로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범정부적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제위기 여파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경기침체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점의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차상위계층과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백46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국비 1조3천2백80억원, 지방비 3천7백90억원 등 총 1조7천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희망근로 참여자의 하루 인건비는 상품권 인센티브를 포함해 3만3천원으로, 참여자는 한 달에 83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임금 중 상품권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 30퍼센트 이상 최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국립묘지 헌화 캠페인

호국영령에 무료 헌화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쇼핑)와 공동으로 '나라사랑 일만 송이 헌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묘지에 헌화를 원하는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면 무료 헌화운동에 참여한 회원 수만큼 우체국쇼핑에서 국립묘지 헌화를 대리해준다.

애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에 보답하고픈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보훈처와 우체국쇼핑 홈페이지에 접속해 헌화를 원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한 뒤 무료헌화를 신청하면 된다. 6월 2일까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신청하면 선착순 1만 명까지는 국립묘지에 무료로 헌화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독거노인복지주택 개관

민관공동 부담으로 독거노인 주택 개관



지난 5월 13일 경기 성남시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성남시,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3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독거노인복지주택 '아리움(ARIUM)' 개관식이 열린 것.

아리움은 성남시가 시유지를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건설비를 각기 16억8천만원과 6억원을 부담하는 등 3개 기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세워졌다. 'ARIUM'이란 명칭은 '아름다운 우리들의 행복한 보금자리'의 줄임말로, 복지주택의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G

글 · 구자홍 기자



상상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물부족 · 물오염 · 물난리 없는 내일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14조 원 투입, 일자리 19만 개 창출!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물의 가치가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강변, 맑은 물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랑스런 우정인' 평창우체국 권운식 집배원

"반가운 사연 오늘도 고갯마루 넘는다"

집배원이라고 단순히 우편물 배달만 하지는 않는다.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가장 먼저 가까이서 나누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말벗이 돼주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글 모르는 노인들에게 편지나 안내문을 대신 읽어주는 것도 권운식 집배원에게는 중요한 업무다.

탈탈탈탈~ 빨간 오토바이가 힘겹게 강원 평창군의 고개 멧둔재를 오른다. 뒤에 빨간 짐칸이 달린 게 한눈에도 우체국 집배원의 것임을 알게 한다. 이따금 밭일하던 농민들이 집배원을 향해 손을 흔든다. 고개 중턱에 난 샛길을 들어선 집배원은 오토바이조차 더는 오르지 못하는 산비탈이 나타나자 오토바이를 세우고는 우편물을 하나 들고 뚜벅뚜벅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다.

평창우체국 집배원 권운식(51) 씨. 그는 이처럼 우편배달을 위해 하루 평균 1백 킬로미터 거리를 오토바이나 도보로 이동한다. 권 씨뿐 아니라 대다수 군 단위 우체국 집배원들은 1인당 평균 10개 리(里)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은 일하기 쉬운 편이에요. 겨울이 제일 고생이죠. 특히 평창은 눈이 왔다 하면 1미터씩 쌓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눈 위를 오토바이로 달리는 셈인데, 한번 잘못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10년 전인가, 눈이 많이 내려 마을 초입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우편물을 배달한 적이 있어요. 한 시간 정도 걸어서 갔다 왔더니 오토바이가 눈에 덮여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다른 책임감으로 30년… 오토바이 수리도 척척

여름도 마찬가지다. 폭우가 내리면 계곡 물이 언제 불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번은 계곡 너머 있는 집에 배달할 우편물이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계곡 물이 불고 있다면서 막더군요. 이 정도면 지나갈 만하다 싶어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급류가 밀려와 물 위에 붕 뜨는 거예요. 다행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땐 아, 죽었구나 싶었죠."

얼마나 중요한 우편물이었기에 목숨까지 내걸고 배달을 하려 했을까 싶어 물었더니 일간지였다며 웃었다.

"신문 보는 걸 하루 낙으로 사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신문이 안 오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배달하기로 한 물건은 최대한 빨리 전해줘야죠."

그의 남다른 책임의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독학으로 기술을 익혀 자기 오토바이는 스스로 고친다. 동료들에게도 기초적인 수리기술을 익혀놓으라고 권유한다.

심지어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구입해 교체함으로써 연간 1천만원의 우체국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 그가 수리기술을 배운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배달을 빨리 하는 게 집배원의 임무인데 오토바이가 고장 나면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가 고장 난 건 집배원과 우체국의 사정일 뿐이죠. 우편물을 제때 받을 고객의 권리를 우리 잘못으로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권 씨가 집배원의 길에 들어선 때는 1979년, 올해로 만 30년이 됐다. 일제강점기부터 평생 집배원 생활을 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집배원은 시골 사람들에겐 가장 친근하고 필요한 존재였다. 마을에 전화가 있는 집이 드물어 전보가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보를 치기 위해, 혹은 전보를 받기 위해 아침부터 집배원을 기다렸다.

불 꺼주고 강도 잡고 사연도 가지가지

또한 그 당시 촌로들은 대다수가 문맹이어서 편지나 전보가 와도 읽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전해주는 집배원이 직접 내용을 읽어주다 보니 자연스레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제일 먼저 나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됐다.

"특히 군대 간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어줄 때면 어머니들이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았어요. 지금도 입대할 때 입고 간 옷을 담은 소포를 받을 때면 어머니들이 다들 울곤 해요."

30년을 한결같이 하다 보니 에피소드도 많다. 불난 집 불을 꺼주기도 하고, 강도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우편물을 전해주러 가는데,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뭔가 해서 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확 치솟더군요. 안주인이 불을 켜놓은 채 외출했던 모양이었어요. 119에 신고해도 소방차가 오는데 20분 넘게 걸리니까 그 사이에 집이 다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불을 껐죠."

권 씨는 봉투에 적힌 이름만 봐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대부분 안다. 주민들의 웬만한 개인사도 꿰고 있다.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노인들을 틈나는 대로 보살피고 있다. 그런 봉사정신을 인정받아 지난해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주는 '자랑스런 우정인상' 대상을 수상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저 제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드린 거죠. 또한 외롭게 사시는 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지나는 길에 잠깐 말벗이 돼드렸을 뿐이고요. 좋은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집배원들이 적지 않아요."

권 씨는 집배원 생활을 하면서 올해 두 딸을 대학과 대학





군 단위 집배원들은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평창우체국 직원들(아래).

원까지 졸업시켰다. 이젠 요령을 부릴 만도 하건만 "아침 7시면 출근해 다른 집배원들이 곧바로 배달을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저녁 6시쯤 배달을 마친 뒤에도 잔무 정리까지 끝낸 후 8시가 넘어서야 퇴근한다"는 게 평창우체국 박영식 우편물류과장의 귀띔이다. 권 씨에겐 집배원이 천직인 모양이다.

"우편물을 전해주러 가는데,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119에 신고해도 소방차가 오는데 20분 넘게 걸리니까 그 사이에 집이 다 타겠더라고요. 어찌합니까. 그래서 직접 불을 껐죠."

그는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고 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우편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사 가면 주민센터에 반드시 이전신고를 하잖아요. 이전신고 정보를 우체국이 공유할 수만 있어도 반송되는 우편물이 훨씬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귀한 우편물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도 안타깝고, 보낸 사람도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벗어날 수 없을걸~ 행복한 문화 그물

"문화친구 덕에 방과 후에도 신나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단체들이 준비한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문화 소외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

촘촘하게 짜인 '문화 그물'에 갇히면 행복하다. 밤새 줄을 서야 볼 수 있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도, 일주일 생활비를 몽땅 털어야 즐길 수 있는 뮤지컬도 부럽지 않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덕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단체들은 올 한 해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가동,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1백51개로 대폭 늘렸다. 누구나 문화로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짜인 프로그램이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문화욕구를 채우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 소외지역 찾아

산골이나 섬마을에서 뮤지컬과 오페라를 관람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고작해야 TV를 통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한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다. 문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산 넘고 물 건널 각오를 한 이들의 작품이다. 지난 4월 20일 서울 홀트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초중고 6백39개교를 찾아 전국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9교시–꿈꾸는 문화열차'가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올해 12월 29일까지 잡혀 있는 문화열차 일정을 보면 비보이팀 '갬블러크루'의 퍼포먼스에서부터 코믹 연극 '묻지마 육남매', 클래식 공연 '베토벤과 친구들'까지 연령별,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빼곡하다.

공연을 본 학생들은 문화열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꼭 다시 보고 싶어요"라는 행복한 수다를 늘어놓았다. 문화열차를 탄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다. 문화열차는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여기에 문화예술단체인 국립 오페라단·합창단·발레단, 정동극장까지 가세했다. 특히 창단 이래 지방 구석구석에서 아리아의 감동을 선보이고 있는 국립오페라단은 올해 오페라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마술피리'와 '피가로'를 준비했다. 전남 목포, 강원 동해 등 6개 도시를 순회하는 오페라단의 상세 일정은 국립오페라단 연간 일정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 문화열차(02-744-7063 · www.intoculture.or.kr)
국립오페라단 (02-586-5282 · www.nationalopera.org)

5월 4일 '꿈꾸는 문화열차'가 찾아간 충북 영동군 용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서로 퀴즈정답을 말하겠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꿈꾸는 문화열차 사업단 제공

'문화 친구' 덕에 방과 후에도 외롭지 않아요

하굣길이 그리 반갑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 빈집에서 홀로 직장에 나간 부모님을 기다리거나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 다닐 형편이 못 돼 방과 후에도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빈 공간을 채워줄 문화 프로그램도 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방과 후 교실'이 바로 그 주인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말까지 부산, 대구 등 지역 문화재단과 함께 전국 5백 개 초등학교 1만5천여 학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목만 봐도 신이 난다. '즐거운 UCC 만들기' '남사당놀이' '창의력을 키우는 연극 세상' 등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서울 신내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연극교육)을 진행하는 김시내(27·서울문화재단 소속) 선생님은 "수업 진행이 다소 느리더라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고, 소극적이던 친구가 자신감으로 가득 찬 표정도 밝아졌다"고 전했다.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도서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책을 보며 쉴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도 마련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천 문학도서를 제공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가 서민들에게 도서를 지원하는 '책다모아'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토대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올해에는 인천시 강화군 '화개가족 도서관', 강원 동해시 '무릉 작은 도서관' 등 모두 61곳이 소외지역 작은 도서관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

문의 · 작은 도서관(02-3704-2753 · www.nl.go.kr/sml)

손끝으로도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눈으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눈 대신 손끝으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생겼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위해 '손으로 읽는 그림책'을 마련, 6월 매주 목요일마다 선보인다. 이는 박물관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사이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대표유물 10점을 소재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또 그림책 제작 전문 강사들의 도움으로 줄거리를 촉각 이미지로 표현해 그림책을 완성할 수도 있다. 참가 희망자는 국립중앙박물관(02-2077-9297)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 청소년이 직접 전통악기 연주를 배우는 전통음악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국립국악원은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해 부산 혜송학교, 전남 함평영화학교 등 특수학교 12곳에 국악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으로 지난해 문을 연 경기 동두천시 '지혜의 등대'.

국립국악원은 "국악교사가 연말까지 학교별로 총 30회 찾아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국악을 들려주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이 아주 높다"며 "그간 대회에 출전해 상을 받은 학교가 3곳이나 된다"고 전했다.

문의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02-580-3046)

부모님 나라 문화 모두 익혀요

5월 3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만난 일본 출신 나노미야 다카코(45) 씨는 "여느 한국 엄마들처럼 아이들과 문화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싶지만, 아빠는 일 때문에 많이 바쁘고 엄마는 잘 몰라 문화프로그램에서 자연히 소외되는 느낌"이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2, 3회에 걸쳐 다문화가정의 가족 1백명을 미술관 전시회에 초대할 예정이다.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그림을 그려보거나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전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술관 측은 방학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오경희 씨는 "소득격차가 문화격차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문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며 "경제가 어렵지만 문화를 통해 온 국민이 꿈과 희망, 친구를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루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덕분에 전국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문화가 생활의 일부가 됐다. 문화 그물은 이미 던져졌다. 이제 행복과 꿈을 끌어올릴 차례다. G

글 ·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벡악마루와 창의문 사이의 성곽 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전망을 즐기는 외국인 탐방객.

북악산~인왕산 서울성곽길

서울이 내 발 아래 있소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어느 해 여름밤에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서울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띠처럼 둘러쳐진 서울성곽 너머로 펼쳐진 서울 도심 야경은 황홀하리만치 아름다웠다. 게다가 고층빌딩이 즐비한 서울 도심을 동서남북으로 에워싼 낙산(125미터)과 인왕산(338미터), 북악산(342미터)과 남산(262미터)의 산줄기는 마치 어머니 품처럼 아늑해 보였다.

전통 성곽과 현대의 고층빌딩들이 한데 어우러진 서울의 야경은 의외로 천연덕스럽고 조화로웠다. 적어도 야경 하나만큼은 세계 어느 수도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까지 생겼다. 하지만 그때 내 가슴 깊이 들어앉은 것은 야경의 황홀함이 아니었다. 휘황한 야경은 오히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내 뇌리에 또렷이 남은 것은 북악산 등성이를 따라 단순하게 늘어선 서울성곽이었다.

사적 제10호로 지정돼 있는 서울성곽은 조선 태조 5년(1396)에 처음 축조됐다. 농한기인 1, 2월에 걸쳐 49일 동안 조선팔도에서 11만8천여 명의 백성을 동원해 성곽의 대부분을 완성했다고 한다. 당시의 성곽은 산지만 돌로 쌓고 평지에는 토성을 구축했다. 그러다 세종 4년(1422) 농한기인 1월, 다시 32만명의 인부와 2천2백여 명의 기술자를 동원해 성곽 전체를 석성으로 개축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한참 지난 뒤인 숙종 30년(1704)에는 서울성곽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새로 북한산성까지 쌓았다.

하루 두 번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

서울성곽의 둘레는 원래 18.2킬로미터에 이른다. 하지만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차 철로 부설 등을 이유로 철거되어 지금은 산지 성곽만 10.5킬로미터 남아 있다. 그나마 와룡공원에서 말바위, 숙정문, 촛대바위, 곡장, 청운대, 백악마루를 거쳐 창의문에 이르는 4.3킬로미터 구간은 1968년에 발생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른바 '1·21사태' 이후로 40여 년 동안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금단(禁斷)의 영역이었다.

2007년 4월부터 와룡공원에서 창의문 사이 구간이 전면 개방됐고, 이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과 고색창연한 역사유적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서울성곽 길을 걸어볼 수 있다.

나는 올해 4월 중순에 와룡공원에서 말바위까지 6백 미터쯤의 짧은 성곽 길을 처음 걸어보았다. 진달래와 산벚꽃

이 만발하고 연둣빛 신록이 막 돋아나기 시작한 그즈음의 성곽 주변 풍경은 강원도의 어느 첩첩산중에 못지않은 자연미를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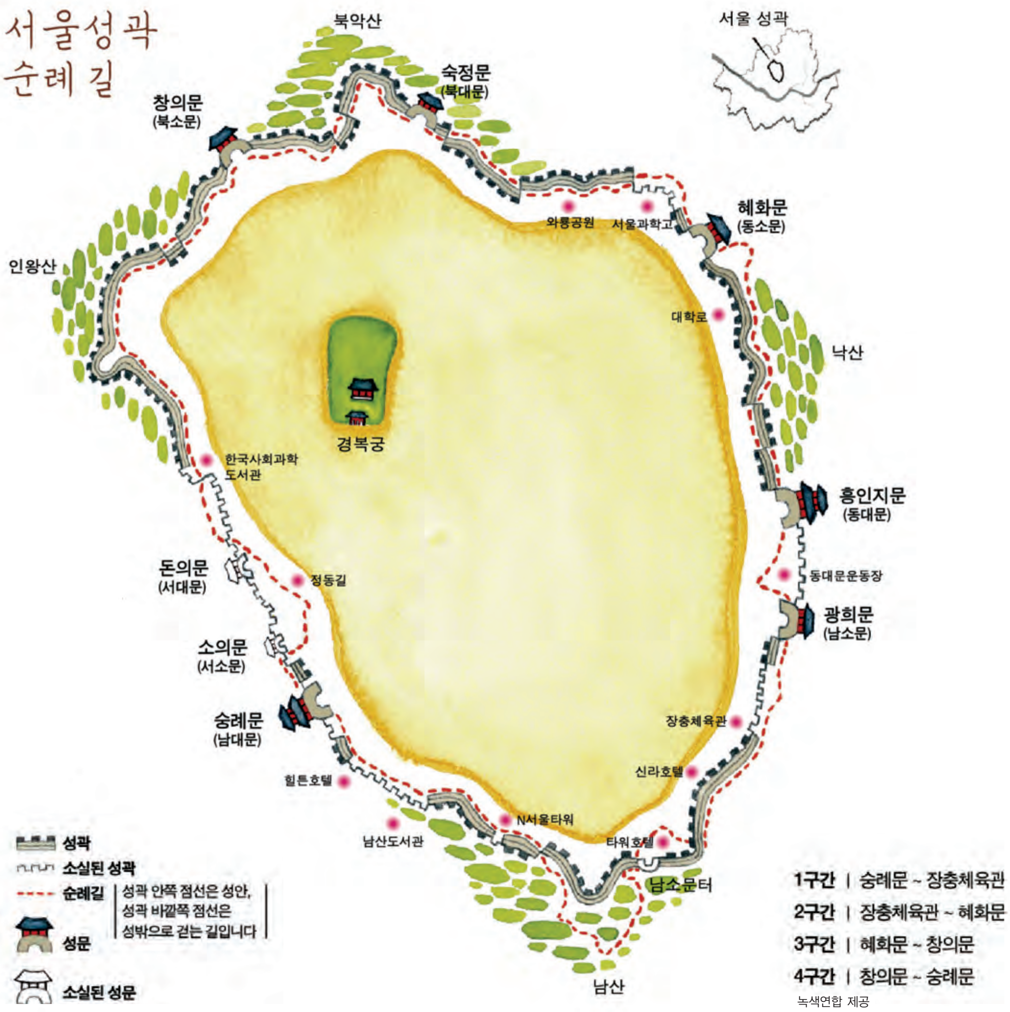
그로부터 한 달 뒤쯤인 5월 중순에는 북악산에서 인왕산으로 연결되는 8킬로미터가량의 서울성곽 길을 가족들과 함께 다시 찾았다. 혜화동 서울과학고등학교 뒤편에서 시작해 와룡공원, 말바위, 백악마루, 창의문, 인왕산을 거쳐 사직공원에 이르는 성곽 길은 어느새 짙은 녹음에 뒤덮여 있었다. 서울 도심을 에워싼 내사산(內四山 : 북악산 · 남산 · 낙산 · 인왕산) 가운데 2개를 연이어 넘는 길이었지만, 녹음 짙은 숲 특유의 향기와 시원한 숲 그늘 덕에 비교적 가뿐하게 걸을 수 있었다.

서울성곽 길을 걸어서 북악산을 넘을 때에는 와룡공원을 기점으로 삼는 것이 좋다. 반대편인 창의문에서 백악마루로 곧장 오르는 길은 몹시 가팔라서 마음 느긋하게 걷기 어렵다. 반면 와룡공원에서 출발하면 시종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평탄하거나 완만한 경사의 숲길을 지난다. 와룡공원을 출발해 성벽 바깥 길을 5백 미터쯤 가면, 성벽 안쪽 길로 넘어가는 나무계단을 오르게 된다. 이 계단의 맨 위쪽 전망대에서는 '부촌'과 '달동네'가 공존하는 성북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와룡공원을 출발해 성벽 바깥 길을 5백 미터쯤 가면, 성벽 안쪽 길로 넘어가는 나무계단을 오르게 된다. 말바위 전망대에서만큼은 삭막한 서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숲이 울창한 생태도시 서울만 두드러져 보인다.

거기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말바위 전망대에서는 삼청공원, 창덕궁 후원(비원), 남산 등지의 울창한 활엽수림과 종로, 세종로, 명동 일대의 빌딩숲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삭막한 서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숲이 울창한 생태도시 서울만 두드러져 보인다.

말바위부터 청운대 아래 청풍암문까지는 성벽 안쪽 길을



녹색연합 제공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바라본
숙정문 일대의 서울성곽과 도심 야경.

따라간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증을 교부받는 말바위 쉼터부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지정장소 이외에는 함부로 사진을 촬영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탐방로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유념하면 큰 불편 없이 기분 좋게 서울성곽 길을 걸을 수 있다.

대공포대 백악마루… 감회 새로워

말바위쉼터에서 4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서울성곽 4대문 중 하나인 숙정문이 있다. '엄숙하게 다스린다'는 뜻을 지닌 숙정문은 애초에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었다. 서울성곽에 동서남북 4대문의 형식을 갖추고,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닫아놓고 백성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켰으나 드물게 남대문(숭례문)을 막고 숙정문을 열었던 때도 있었다. 가뭄이 심해서 비 오기를 간절히 바랄 때였다. 풍수상으로 남쪽은 양기, 북쪽은 음기가 많아 가뭄이 심할 때엔 음기를 통하게 해야 비가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흥미롭고도 다양한 역사와 전설들을 전문 해설사에게서 들으며 북악산 서울성곽길을 걷고 싶다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말바위쉼터와 창의문쉼터에서부터 시작되는 '북악산 서울성곽 역사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정기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쇠말뚝이 박혔던 촛대바위, 북악산과 인왕산의 서울성곽이 시원스레 조망되는 곡장, 성의 안팎을 은밀히 오갈 때 사용하던 청풍암문을 지나면 금세 청운대에 도착한다. 청운대에서는 서울 도심 쪽으로 시야가 훤하고, 북악산 정상인 백악마루가 지척이다. 탐방로가 성벽 바깥쪽으로 개설돼 있는 청풍암문과 청운대 구간에서는 서울성곽의 축조시기별 특징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청운대와 백악마루 사이의 성곽길에는 1·21사태 당시의 총탄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 '1·21 소나무'도 찾아볼 수 있다.

1·21 소나무를 뒤로하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면 백악마루 아래의 갈림길에 도착한다. 여기서 몇 십 미터 거리인 백악마루는 '백악산(白岳山)'으로도 불리는 북악산의 정상을 가리킨다. 북한산의 남쪽 지맥에 솟은 북악산은 내사산 가운데 가장 높다. 산세가 좌우 균형을 이룬 데다 가운데 부분이 반듯하게 솟아올라 마치 갓 피어난 꽃봉오리를 닮은 듯







1 종로구 혜화동의 경신고 담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성곽의 안쓰러운 처지.
2 인왕산 능선길을 따라 이어지는 서울성곽.
3 자하문으로 더 잘 알려진 창의문.

한 형상이다. 조선시대 이후로 북악산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돼왔다. 조선시대에는 정궁(正宮)인 경복궁의 진산(鎭山)이었고, 지금은 청와대의 뒷산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백악마루에는 대공포대까지 들어서 있었다. 백악마루에 올라섰을 때의 감회가 각별할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백악마루와 창의문 사이에는 어지럼증이 날 정도로 가파른 계단이 한동안 계속된다.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씩 되는 돌들을 몹시 가파른 이곳 산등성이까지 옮겨와서 성을 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과 경이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홀로 이곳을 찾은 한 외국인 탐방객은 인왕산이 건너다 보이는 이 길의 중간쯤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사방을 둘러보기도 했다.

북악산의 서울성곽 길은 창의문에서 끝난다. 4소문 중 하나로 서대문과 북대문 사이에 위치한 창의문은 흔히 '자하문'으로 불린다. 이 자하문에서 시작되는 서울성곽 인왕산 구간은 오전 9시~오후 5시(하절기)까지만 개방되는 북악산 구간과 달리 월요일이나 공휴일 다음 날만 아니면 24시간 언제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서울 도심의 휘황한 야경을 감상하거나 동녘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해돋이를 보면서 성곽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서울성곽 복원정비공사가 한창인 범바위~사직공원 구간은 올해 말까지 출입하기 어렵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코스 정보 서울성곽 홈페이지(www.bukak.or.kr)에 들어가보면 북악산 서울성곽길의 자세한 이용안내와 역사를 알 수 있다. 초등학생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와룡공원에서 백악마루를 거쳐 창의문까지 4.3킬로미터 구간은 약 2시간 30분, 자하문에서 인왕산 정상을 거쳐 사직공원까지의 3.4킬로미터 구간은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된다. 북악산과 인왕산의 서울성곽 길에서는 음료나 간식을 구입할 수 있는 매점이 없다. 그러므로 미리 생수나 음료수, 간식 등을 챙겨 가는 것이 좋다. 탐방로에서 간식과 음료수를 먹을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 잡은 쉼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가는 길 승용차를 이용하면 나중에 다시 차를 찾아와야 하므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와룡공원 입구의 성균관대 후문까지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2번 마을버스를 타면 된다.

한국 만화 100년, 미래를 그리다

가족이 함께 보면 더 좋은 '만화-한국만화 100년' 展

한국만화 1백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지평을 제시하는 '만화-한국만화 100년' 전이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만화100주년위원회와 함께 기획했으며 작가 선정, 전시 구성까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사회 현장을 담아낸 초기 만화에서부터 새로운 표현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현대 만화에 이르기까지 한국만화 1백년의 시대적 변천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만화로 보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시에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만화가 2백50명이 그린 작품 1천5백 점과 만화적 감성과 상상력으로 작업한 현대미술 작품 60여 점이 선보인다.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이승미 팀장은 "만화는 이미 출판을 넘어 현대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재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상도 높아졌다"며 "이번 전시는 한국만화 1백년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되돌아보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 만화가 지니는 넘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판으로 미래의 다양한 발전을 준비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시 6월 2일(화)~8월 23일(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후 9시까지(단 매주 월요일은 휴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관람료 가족권(성인2+어린이2) 8천원, 성인 3천원, 초중고생 1천5백원
문의 02-2188-6114 www.moca.go.kr

윤병천 대금 독주회

일시 6월 2일(화)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관람료 8천원
문의 02-580-3300 www.ncktpa.go.kr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인 대금정악의 맥을 잇고 있는 대금 연주자 윤병천의 다섯번째 독주회. 이번 무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현악협주곡 '영산회상' 전장(全章)을 대금 독주로 선보이는 보기 드문 연주회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인 대금정악의 이수자이며,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인 윤병천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관악영산회상'을 시작으로 '평조회상', '자진한잎' 등을 연주해왔다. 이번 연주회에서 윤병천은 대금정악의 태두(泰斗)이자 스승인 녹성 김성진의 예술혼을 오롯이 담아낼 예정이다.

'퍼니밴드'와 함께하는 유쾌한 콘서트

일시 5월 30일(토) 오후 6시
장소 국립극장 문화광장 특설무대
관람료 무료
문의 02-2280-4115~6(국립극장 고객지원실) www.ntok.go.kr



유쾌한 악대라는 뜻을 지닌 퍼니밴드는 젊고 신선한 감각으로 무장한 여섯 남자들로 구성돼 있다.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퍼커션 등 금관 5중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는 국내 최초의 퍼포먼스 브라스 앙상블 그룹이다. 2002년 결성 후 지금까지 2천여 회의 공연을 펼쳤으며, 의자를 버리고 유쾌하게 춤추듯 연주하는 모습이 볼 만하다. 국립극장은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토요문화광장'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무료 공연을 선보인다. G

글·김지영 기자



지금 부터
경인 아라뱃길
Gyeong-in Waterway
시대입니다
세계로 통하는 새로운 물길!
경인 아라뱃길은 맑은 물이 흐르는 물길만이 아닙니다.
우리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물길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새 이름으로 결정된 '경인 아라뱃길' 로 불러주십시오.
'아라' 는 아리랑의 후렴구에서 따온 말로, 경인 아라뱃길은
21세기 녹색성장의 꿈을 품고 서해와 아리수(한강의 옛이름)를 잇는
글로벌 명품 뱃길을 의미합니다.
국토해양부
K water



희망근로 2009
희망으로 날다
힘내라, 경제야!
당신을 응원합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2009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09. 6월 ~ 11월 (6개월간)
■ 모집기간 | 2009. 5월 13일 부터
■ 모집인원 | 전국 00만명
■ 참가자격 |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
■ 참여신청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기타 신청자격, 선발절차, 근무시간, 임금 등 자세한 사항은
시 · 군 · 구 및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